

1991년 5월호
성도의 벗

서울특별시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선교부 지역인 산토 도밍고의 엘사 마리아 토렌티노. 원주민 선교사들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체 선교사 가운데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 선교사 가운데 한 명임. "도미니카 성도들", 10쪽 참조.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거룩한 십일조의 법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2

내 자신의 눈으로 파멜라 제이 테일러 7

도미니카 성도들 엘리자베스 반덴버그 · 제드 반덴버그 10

긍정적인 훈계 마리린 위태커 25

그리스도의 생애 칼 하인리히 블로흐 그림 32

아버지와 나의 성전 추천서 엘 톰 패리 장로 42

청 소 년 란

"줄리어스처럼 정직하길" 줄리어스 비 시저 8

질 의 응 답 : 마약을 복용하라는 유혹을 물리침 26

마 음 속 으 로 확 실 히 아 고 있 다 면 설 리 폴 렌 30

함께 지냄으로써 선행함 크리스 크로우 46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1

가족 지침서 : 자녀들이 간증을 얻도록 돕는 방법 18

방문 교육 메시지 : 우리의 소중한 가치 24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아픈 신권 회복 기념사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65

교회 및 지역 소식 67

어 린 이 란

요셉 스미스 켈렌 리스 50

이야기 : 5월의 여왕 바바라 웰즈 52

노래 : 성신 진 피 띠 러 55

탐험 : 내 친구, 몽 사람들 제니퍼 브라스 젠킨스 · 샌디 브라스 젠킨스 56

함께 나누는 시간 : "나의 반석 위에 세우라" 로럴 롤핑 58

친구가 친구에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60

우리들의 친구 : 핀란드의 사투 메렌루오토 로런스 커민스 62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레프트 벤슨,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셀 비 웨스턴, 리차드 지 스킳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존 피 그로버그,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02권, 제28권, 제5호
등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91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85 230
Printed in Korea 5/91

사랑으로 충만함

교회의 새로운 회원인 저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쉬엔타오 체 쟁(중국어 판)과 같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출판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제 160차 반연차 대회에서 총관리 직원들이 하신 말씀을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체적인 주제가 사랑과 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와드의 회원들도 그 메시지에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복음의 원리대로 성실히 살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들이 모두 교회를 위해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통치 치양
선추 지부
대만 선추 지방부

제언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살된 제 아들은 아내와 제가 각자 정기 구독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일년치 정기 구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지에 실린 대부분의 기사와 이야기들은 제가 스테이크 부장단 제 2보좌로서 회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좌로서 봉사하면서 최근 성전과 가족 역사에 관한 말씀이나 기사가 별로 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좀더 다루어 주시겠습니까? 총관리 직원의 말씀, 희생과 신앙 및 충실함에 관한 기사,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신는 것이 잡지의 훌륭한 내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루발카바 로페스
멕시코 푸에블라

비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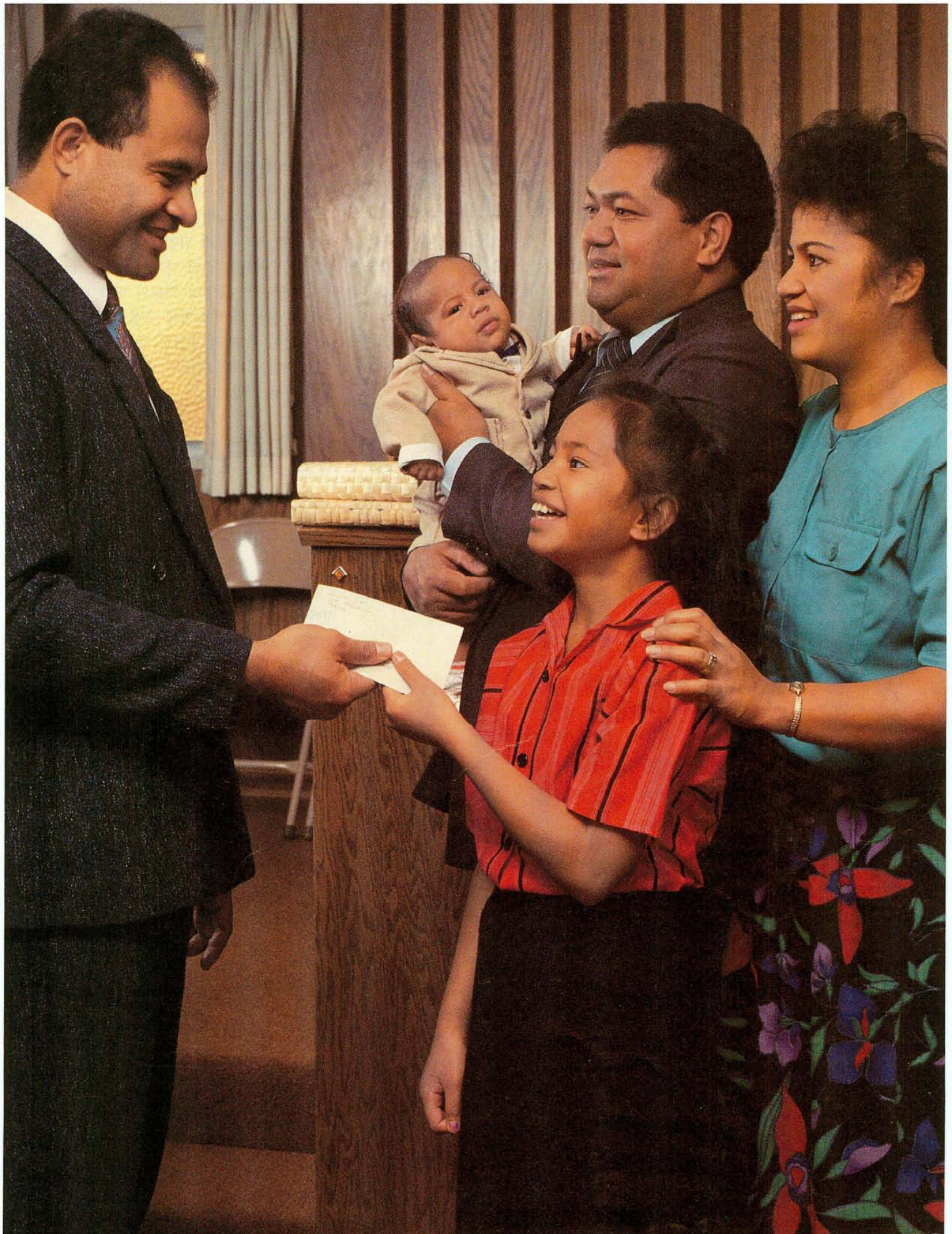
지난해에 교회 회원인 한 친구가 저에게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몇 부 빌려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은 것은 1989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이 담긴 1990년 1월호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관한 아름다운 기사가 많이 있었으며, 저는 주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아름다운 잡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경전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원리를 배울 수 있으며 이 잡지에서는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리아호나를 평소에 즐겨 읽으므로 정기 구독을 하고 싶습니다.

빅토르 만웰 비에가스
멕시코 베라크루즈



거룩한 십일조의 법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거룩한 십일조의 법에 관한 간증을 전하실 때나 정직한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약속을 전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확신에 가득 차 장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대의 예언자 말라기가 전한 이 훌륭한 말씀은 종종 인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말라기 3:8~12)

우리에게 십일조의 법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실히 십일조를 내는 회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하늘의 축복에 대해 간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이 아직 젊을 때 이 습관을 몸에 익히고 평생 동안 계속해 나가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에 우리에게 십일조의 법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우리 와드에는 감독님의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 결산을 하기 위해 감독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당시 매우 어렸으며, 존 시 던칸 감독님과 십일조 결산을 하기 위해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의 당황했던 심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빈곤했던 그 당시에 우리는 용돈을 많이 받지 못했으며, 그 금액이 단돈 200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것은 제가 주일학교에서 외우던 짧은 동시를 토대로 한, 어린이다운 계산에서 나온 정직한 십일조였습니다.

십일조란 무엇일까요? 저는 어느 때나 말할 수 있어요. 1000원에서 100원을, 100원에서 10원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의무이며, 주님께서 그 의무를 명하신 대로 우리와 같은 어린 아이도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며, 주님의 교회에서 위대한 일이 성취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며 십일조를 바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문을 열고 놀라울 정도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면, 꿈에 그리던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별장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십일조를 바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기본 목적은 교회가 주님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은 부수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서, 그것이 반드시 경제적, 물질적인 면에서 유익을 주는 형태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에 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말라기 3:11~12)

주님께서 세상의 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은사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는 토지 소산에 대해 말했습니다. 황충을 금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관심있는 일에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지식, 감추인 지식의 보화까지 받는 큰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한다면 우리 땅이 아름다와지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을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일컫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요즈음에는 십일조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오래 전에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경험한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회원이 성전 추천서에 서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평상시대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정직한 십일조를 내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분은 숨김없이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며, 빚이 많기 때문에 낼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으리라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회원은 일 이 년 동안 예전과 다름없이 지내다가, 마침내 정직한 십일조를 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분은 후에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빛이 있기 때문에 십일조를 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빛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바친 것을 모두 되돌려 받았으며,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빛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출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세우며, 돈을 어디다 써야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높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나 충동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으로 주님의 집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낼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금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는 충실히 십일조를 낸 회원이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 그에게 축복이 부어졌음을 간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아들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시며 약속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니파이일서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처한 형제들에게 니파이가 한 다음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도록 하자. 보라, 주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하시니”(니파이일서 4:1)

저는 진심으로 말일성도가 이 십일조와 헌물을 바침에 있어 주님에게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이 아직 젊을 때 이 습관을 몸에 익히고 평생 동안 계속해 나가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원 여러분,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 십일조와 헌물을 충실히 바치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그렇듯 많은 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의 제정을 위해 손수 마련하신 계획하에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십일조는 간단하고 쉬운 원리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원리는 교리와 성약 119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를 실행한) 연후에 [1883년 성도들이 그들의 ‘잉여 재산’을 감독에게 바친 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의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구절은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정부가 제정하여 집행하는 복잡하고 부담스런 조세 규정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자는 주님이 하신 간단한 말씀으로서 십일조는 개인의 신앙에 따라 지불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 세금은 인간이 제정한 법에 따라 강제로 집행되는 복잡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교회가 위임받은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수입원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따르는 이 위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충실히 지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길 간구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은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2. 건강, 지혜, 지식,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됨(니파이일서 30:7), 우리에게 황충이 접근하지 못함 등은 우리가 십일조의 법을 준수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많은 축복 중 일부이다.
3. 십일조는 돈보다는 신앙으로 지불되는 것이다.
4. 주님은 교회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셨으며, 십일조는 바로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수단이다.

내 자신의 눈으로

파멜라 제이 테일러

주변에 있는 사물 중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0퍼센트에 불과하다... 대부분 크기가 크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잠시 다른 변화를 맛보았다.

나는 그늘진 언덕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내가 앉은 잔디는 마치 초록색 융단처럼 대지를 덮고 있었다. 나는 근처의 장미 꽃 향기를 들여마신 후 무릎을 꿇고 앉아 꽃송이를 살피시 만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일부나마 볼 수 있는 것을 감사드렸다.

그 때 갑자기 무엇인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가까이서 짹짹하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새를 보고 싶었다. 새는 책에서 그림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새는 너무 작고 빠르게 날아다녔으므로 진짜 새를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갈색 물체를 힐끗 보게 되자 내 가슴이 뛰었다. 그 물체가 새였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눈을 작게 뜨고 자세히 살피야 했다. 나는 그 새가 내 앞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날개를 쭉 펼치는 것을 바라다 보았다. 나는 그 새를 집주어 쫓아버리고 싶지 않았으므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새는 잠시 멈칫하더니 푸른 창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나는 너무 아쉬워서 눈물이 계속 났다. 나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조금만 더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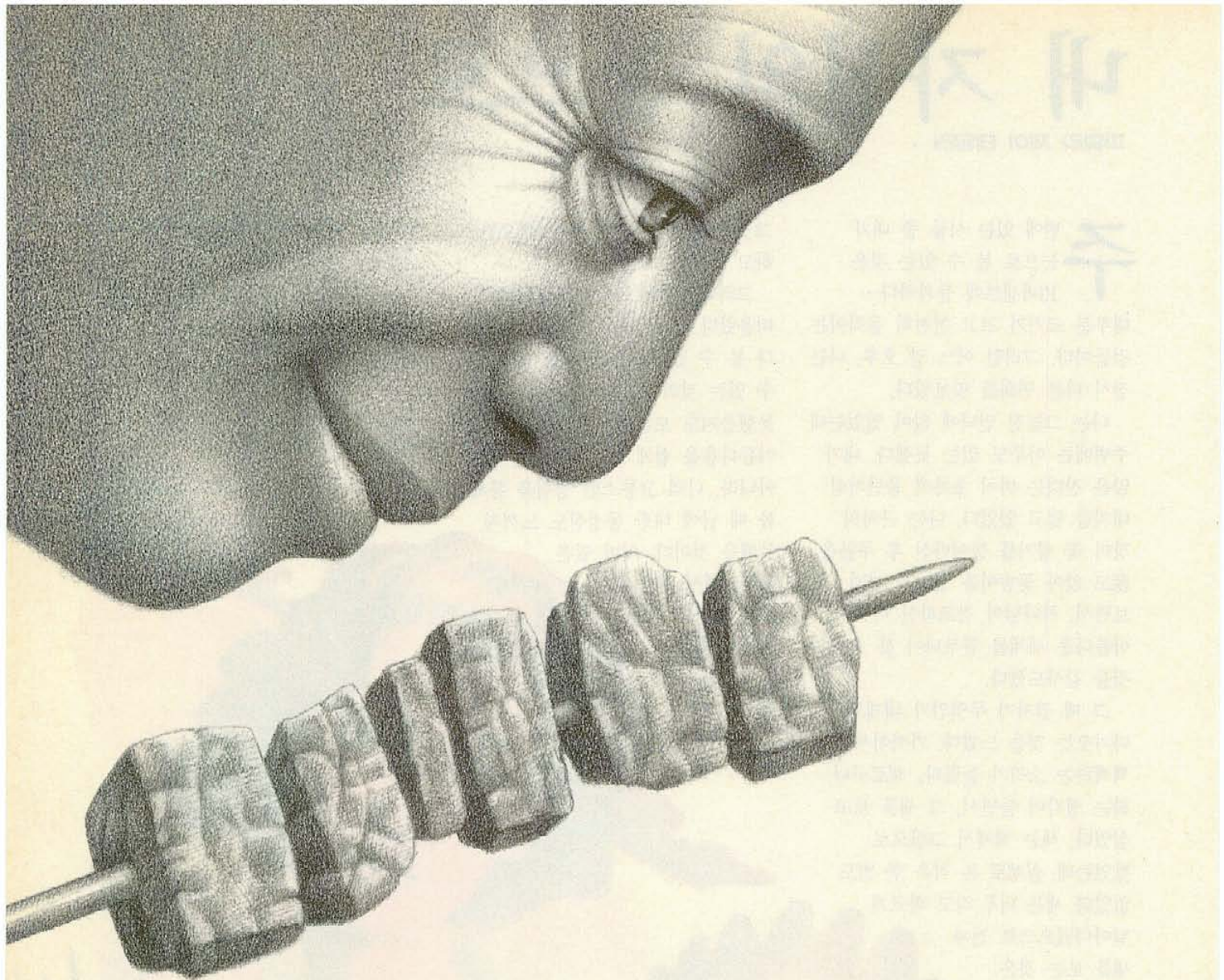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만일 내가 사물을 온전히 다 볼 수 있다면, 지금처럼 내가 볼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또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쉽게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볼 때 남에 대한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암시해 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길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은 후 "주님, 제가 새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다. *

파멜라 제이 테일러는 현재 베니언 유타 이스트 스테이크 벨리 파크 워드의 회원이다.





저는 이곳 필리핀에서 말일성도가 된 것이 기쁩니다. 친구들에게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종교는 제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직입니다. 정직은 친구들에게 저와 제 종교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간단한 방법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경험이 이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갔었는데, 수업을 하는 동안 배에서 계속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근처에 있는 양념한 고기 꼬치를 파는 노점상으로 뛰어갔습니다. 꼬치 두 줄을 먹은 뒤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공책에 무언가를 필기하라고 하셔서 연필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꼬치 값으로 치렀어야 할 돈이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교실 밖으로 나와 그 가게로 달려가 꼬치 값을 지불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저에게 꼬치 한 줄을 거저 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띠우며 교실로 돌아왔는데, 선생님께서 무척 화가 나 계셨습니다. 깜박 잊고 나갔다 오겠다는 허락을 안받았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왜 밖으로 나갔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리자 선생님은 뜻밖에도 제 어깨에 팔을 얹으시고 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줄리어스처럼 정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돈을 그냥 손쉽게 갖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왜 돌려드렸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제사이고, 만일 제가 합당하지 않다면

“줄리어스처럼 정직하길”

줄리어스 비 시저



감독님께서 제가 성찬 전달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시질 못하고 다시 한 번 왜 그 돈을 갖질 않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정직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왜? 너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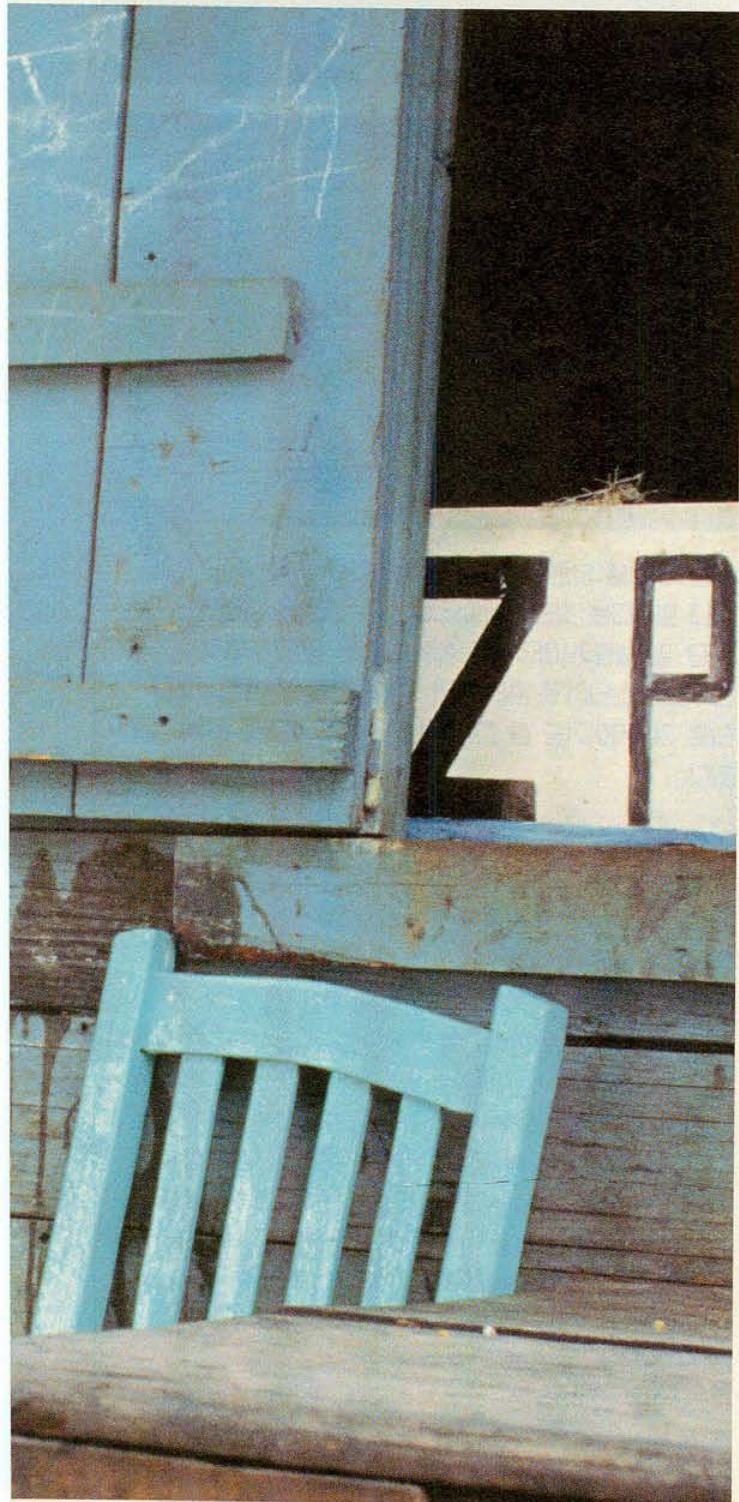
주저없이, “저는 몰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정직했구나.”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제가 위인이라도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는 정직, 진실...을 믿는다.”로 시작되는 신앙개조 제13조를 준수했기에 기쁩니다. 참으로 정직은 최선의 방책입니다. *

도미니카 성



도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교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함으로써 축복과 도전이 동시에 주어졌다. 이 카리브해 섬나라의 회원과 지도자들은 앞날을 낙관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반덴버그 • 제드 반덴버그

10년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물어봤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을 것이다. 하이티와 히스파놀라 섬의 동쪽 삼분의 이를 공유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는 플로리다에서 동남쪽으로 약 구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1978년까지 도미니카인들이 교회와 가진 유일한 접촉은 가족 메시지라고 부르던 텔레비전 “광고 방송”이었는데,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한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가 후원한 것이었다.

현재는 세 개의 스테이크와 두 개의 선교부 및 칠십 개가 넘는 와드 지부가 있으며,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말일성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회원들의 숫자도 1978년 6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25,000명을 넘어섰다. 도미니카의 수도인 산토 도밍고에서 카리브해의 해변을 따라 나 있는 시골 마을까지 전역에 걸쳐 모든 사회 계층 및 직장에서 말일성도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개종한 안토린 애스테반 로드리게즈와 그의 아내 로사,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로스린(2세), 살로몬(5세) 및 로린(8세)이 그들의 산티아고 집 앞에서 서 있다. 로드리게즈 형제는 현재 산티아고 스테이크 센터의 건축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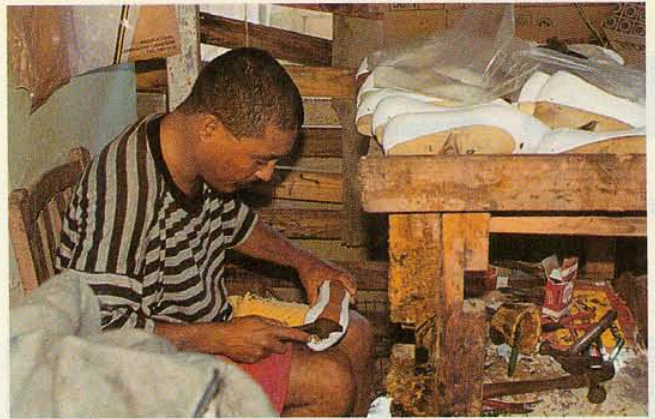
교회의 이와 같은 눈부신 성장은 1978년 여름 말일성도인 미국인 가족과 도미니카인 가족이 미국으로부터 산토 도밍고로 이주해 오면서 시작되었다. 두 가족은 전에 그곳 사람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곧 이어 몇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

11월에는 선교사들이 도착했으며, 12월 7일에 엠 러셀 벨라드 장로가 선교 사업을 위해 이 나라를 헌납했다. 이 모든 일은 1978년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들은 신권을 소유할 수 있음을 발표한 바로 그 해에 이루어진 것이다. 스페인계, 아프리카계, 및 여러 인종의 회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에 상응한 신권 소유자의 증가 역시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드디어 우리를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도미니카인들의 말에 쉽게 수긍이 간다.

세계 다른 나라의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도미니카 성도들 역시 가족 및 청소년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있으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회원들처럼 그들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하는 듯 보이는 책임과 열망으로 인해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 회원들이 서로 단합하고 사회 계층간의 격차를 좁히기를 원하며, 또한 현장 성장기에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훌륭한 지도자로 커 나가도록 준비시키길 원한다. 그 밖에도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서 현대의 여성 세계가 도처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자매들이 잘 대처하도록 돕고자 한다. 만일 누군가가 도미니카 회원들에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질문한다면, 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것들에 비해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해 저녁 모임이나 활동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등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상호 협조를 통해 그들은 기대에 가득찬 과거와 더불어 시작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모두가 하나

산토 도밍고에 사는 라몬 아브루는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교회는 제가 다른 종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상단: 라파엘 딜론은 가정에서 제회업을 하고 있다. 그와 아내 밀레디는 최근 산티아고에 있는 교회에 가입했다.
하단: 딸 블랑카 마리아와 함께 사진을 찍은 도밍고 크루즈는 산티아고 빌라 올라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의료 기술사이기도 한 그는 집 뒷뜰에서 취미로 새를 기르고 있다.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무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주님의 교회는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대로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찬식, 와드 활동 및 심지어는 소규모 지도자 모임에도 충만히 깃들여 있는 단합 정신과 따뜻함은 회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 단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모사이야서 18:21)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입증해 준다. 이러한 것은 모임이 끝나고 나서 회원들이 서로 따뜻한 포용을 주고 받는 모습과, 지방부 무도회에서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모이게 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열심히 가정 방문 교육 약속을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회원들간의 단합을 단순히 도미니카인들의 따뜻함과 친절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지도자들과 회원들 모두 친절과 협조를 유지하고 때때로 각계 각층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루기 어려운 일을 교회에서 성취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런 한편 사회적, 지리적,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서로 소원한 사람들은 영감적인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산티아고 지방부장인 라몬 란티구아와 그의 아내 빅토리아 같은 도미니카 교회 지도자들은 이에 부응하는 회원들이다.

라몬은 이렇게 말한다. “계급 차이라는 문제를 놓고 저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때때로 교회 모임에서 상류 사회 자매들에게는 서로 만나자마자 포옹을 하면서 반면에 다른 자매들에게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만을 던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몬은 “만일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그분 역시 상류 사회 인사들에게만 미소를 띄워 주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빅토리아는 선물을 교환하는 것과 같은 활동이 “부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안되지만 가난한 회원들의 경우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사려면 오랫동안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척 부담스러워 했다.

빅토리아는 현재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사회 계층간 차이를 낳을 만한 활동은 계획하지 않으며, 대신 모든 회원들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는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란티구아 지방부장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대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회원들이 지도자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할 것을 지도자들에게 권고한다.

이러한 결과 기존 회원들과 신입 회원들은 물론 비회원들까지 모두 하나가 됨으로써 이들 모두가 교회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스페인,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생활한 바 있는 세사르 로자노와 릴리안 로자노는 1989년 침례를 받으면서 도미니카 회원들로부터 매우 따뜻한 환영을 받고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압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매우 친절히 대해 줍니다.”

청소년을 인도함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청남 청년들이 활동을 할 경우 단지 청소년 지도자들만 아니라 감독, 스테이크 부장, 보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산티아고 청소년들이 지방부 활동 모임에서 춤을 추는 동안 지역 회장단은 음악을 담당하며, 때때로 함께 춤을

추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 금요일 세미나리 공과가 끝난 후, 지부장은 학생들에게 햄과 녹인 치즈로 만든 도미니카 식의 조식 샌드위치를 만들어 준다.

“우리 청소년들도 세계 도처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이 모두가 그들에게 순결을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라고 산토 도밍고 스테이크 청녀 회장인 마리아 페냐 드 디아즈 자매는 말한다. 지도자들은 또한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결혼에 관한 관습 및 도미니카 청소년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사교상의 음주 문제와 싸우고 있다. 마리아의 제1보좌인 마르타 폴랑코 자매는 이렇게 전한다. “청소년들이 결혼 자체를 그다지 중요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성전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지도자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는 청녀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리아 디아즈는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관할하는 스테이크 내의 모든 청녀들이 암으로 고생하는 한 소녀를 위해 금식했던 일을 떠올린다. 그 소녀가 회복되자, 우리는 그녀를 청녀 생일 파티 모임에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든 청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라고 마리아는 말한다.

청남 회장인 아구스틴 프레트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청소년들이 세속적인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신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남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산티아고 지역 청녀 회장인 아나 머시디스 토레스는 청녀들과 함께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혹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그녀가 책임지고 있는 청녀들을 위해 종종 기도한다.

도미니카의 청소년들은 그와같은 헌신적인 인도에 훌륭한 반응을 보여 왔다. 도미니카의 두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복음 선교사 가운데 30 내지 40 퍼센트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며, 이곳의 청소년들은 18~19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 또한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19세의 리카르도 베아토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산티아고 선교부 산하 라 베가 지부 제1보좌로서 봉사하고 있는 그는 구도자반을 가르치고 있으며, 와드 연극 위원회를 이끌고 있고, 개종한 이래 자신의 목표를 변화시켰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교회 회원이 되기 전 저의 목표는 이곳에 있는 다른 여러 청소년들의 목표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것들을 원했으며, 뉴욕으로 가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현재 그가 원하는 것은 선교 사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하며, 행복한 가족을 꾸미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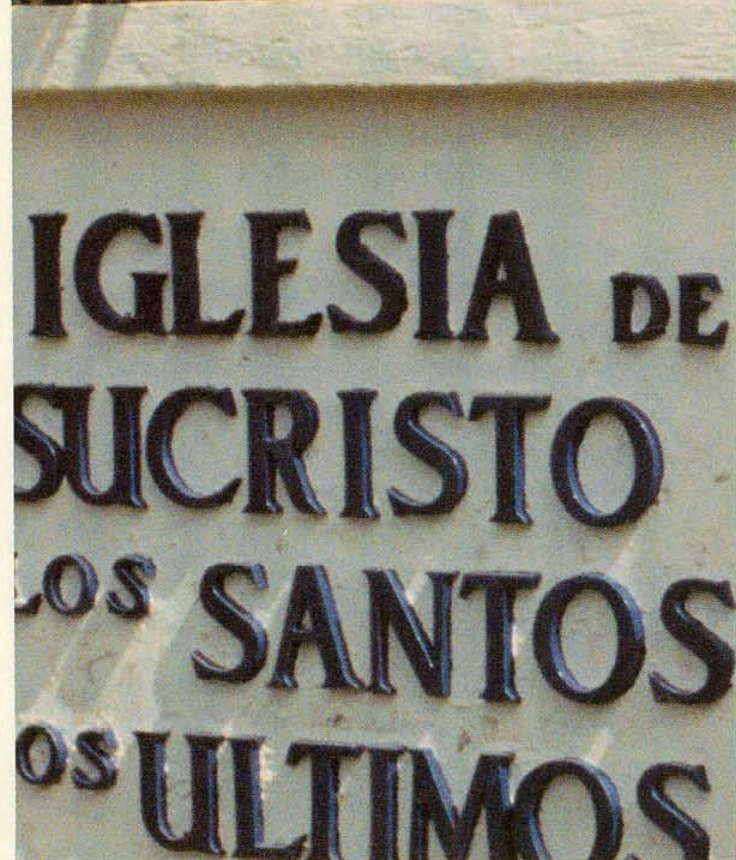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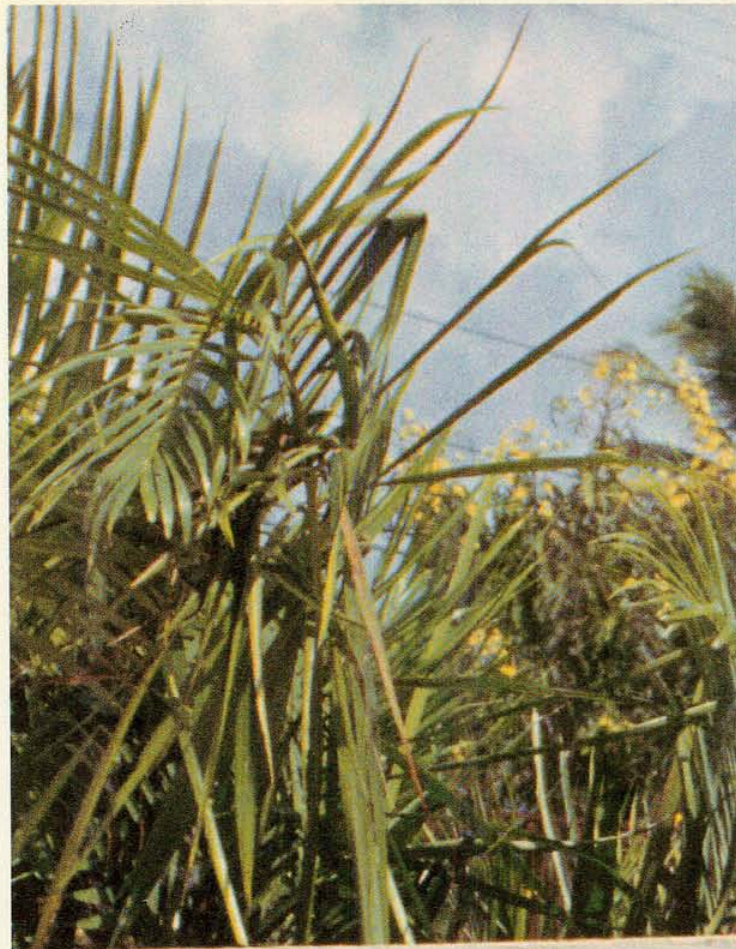
조지 도밍구에즈는 스물 셋이라는 나이에 산티아고 지방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열 네 살 때 교회에 가입한 뒤 그는 세미나리를 마쳤고 선교 사업을 했다. 현재 그는 폰티피시아 우니베르시다드 마트레 이 마에스트라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한번은 그의 인류학 교수가 삼백 명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왜 너는 물론이니?”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해 한 학생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특별하고, 열성적이며,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젊은이들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 없이 혼자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교회에서 책임감있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르타 폴랑코의 말이다. 도미니카 지도자들은 아구스틴 플레트의 접근 방법에 다음과 같은 호응을 보인다.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청소년들은 형제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함

세계 도처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지도자들 역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회원들은 가난과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평가해 봄으로써, 가정 방문 교사로서 혹은 단순히

파우스티노와 엠마 피카르도는 산티아고 지역 리버티드 지부 회원들인데, 처음엔 그들의 문을 두드린 교회 선교사들을 백과 사전 판매상이라고 생각했었다.





복음 안에서의 친구로서 서로 협조한다. 예를 들면, 어느 회원의 자녀가 병이 나서 부모가 의사 진료비는 지불했지만 약을 살 돈이 없을 경우, 몇몇 와드 회원들이 대신 아이에게 필요한 약을 사주었다.

안나 머시디스 토레스가 과테말라 시티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던 날 밤, 그녀의 집이 불에 소실되었다. “회원들이 제게 옷을 비롯한 모든 요긴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들은 그곳에 있어 주었고 현재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안나는 말한다.

어떤 회원들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십일조를 내는 일이 일종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잘 견어낸 회원들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면서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산토 도밍고의 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십일조를 제외한 모든 계명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계명을 준수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계명을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뒤로, 그는 완전한 십일조를 냈다. “저는 기대 밖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십일조 경험담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이 어려운 가족들도 있다. 몇몇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성전에 다녀왔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과테말라 시티 성전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과테말라로 여행을 한다 해도 여전히 수 개월간, 아니면 수년간 저축을 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있는 성전에 갔다올 수 있었지만, 이것은 보통의 도미니카 가족에게는 엄두도 못낼 일입니다.”라고 산토 도밍고 선교부 제1보좌인 파우스토 벤츄라 형제는 말한다.

비록 교회에 속한 전체 가족 중 5퍼센트만이 성전에 다녀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봉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부모들은 영원한 세계를 마음에 그려보고 있고, 성전 세미나에 참석하며, 언젠가 그들 자신의 성전을 갖겠다고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여성들의 필요 사항

산티아고의 아이다 무노즈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단: 산토 도밍고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도미니카 청소년들은 스테이크와 와드 선교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하단: 이들 도미니카 청소년 성도들이 복음의 따뜻함과 돈독한 우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도 교회가 모든 분야에서 이 나라의 여성들을 위해 도움을 줍니다.” 그녀가 언급한 여성들이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집에 남아 있고자 하는 여성, 기혼 및 미혼 여성, 그리고 상호부조회로부터 도덕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의미한다.

독신 자매 및 어머니들을 포함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호부조회의 교육적인 도움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건강식을 요리하는 것, 현명한 금전 관리 및 자녀들을 책임감있게 성장시키는 일 등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가사 모임은 여성들이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원천이 된다. “가사 모임을 통해 배운 수공예 덕분에 여가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미레디 딜론은 전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호부조회가 낮동안 파출부로 일하다가 밤에는 자녀들을 돌보느라 때로는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 레오나르다

페레스 드벨비스 같은 자매들에게 우정 증진을 하고 영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제 자신을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와드의 자매들로부터 크나 큰 사랑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기분이 언짢아 하면 우리는 그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어디에서 그러한 사랑과 지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많은 독신 자매들은 와드와 지부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아나 머시테스 토레스 자매는 산티아고 지방부 청녀 회장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의 삶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은 제 가족이 되었으며, 그들은 또한 언젠가 저의 자녀들도 교회에 올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 주기도 합니다.”

리타 비비아나 드 크루즈는 도미니카 여성들의 또 다른 일면을 대표한다. 그녀의 남편 도밍고는 의료 기술자이자 빌라 올라 지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리타는 법원의 서기로 근무하고 있으나 남편과 의논해 곧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애 남겠다고 마음 굳혔다. “이것은 제가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는 생각조차 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리타의 말이다. 반면에 리타는 상호부조회에서 배운 가사 기술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말한다.

미래를 위해 준비함

1983년 헤토르 안토니오와 베니타 리베라토가 교회에 가입했을 때, 친구들은 그들에게 들어보지도 못한 종교에 입교하다니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들 중 상당수가 교회 회원이며, 그 중 한 명은 저와 함께 고등 평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라고 헤토르 형제는 말한다. 베니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자신이 보아온 교회의 성장을 돌이켜 보면서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계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저는 그들 생애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될 제2세대 회원들을 인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페레스와 루비앙 세쿠 이 같은 회원들은 지역 사회와 교회 회원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루비앙은 산토 도밍고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곳이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조그마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말일의 여성들 : 루비앙 세쿠이,” *탐불리*, 1988년 2월, 35쪽 참조.) 산토 도밍고의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인 페레스는 세미나리 및 신학 연구원 등록 학생 숫자가 전국적으로 60명에서 2천 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지켜 보았으며, 이를 위해 그 자신도 열심히 뛰었다. 그는 “결국, 우리의 미래 지도자들은 이러한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도미니카 회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라파엘과 밀레디 달론 부부의 다섯 식구가 교회에 가입한 후 “이웃 사람들까지도 우리 가족에게서 어떤 새로운 친밀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라고 라파엘은 전한다. 그는 고등 평의회원으로 봉사하며, 집에서 구두를 만들고 있고 가족과 가까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밀레디에게 있어서, 가족이 함께 침례받은 일과 결혼 생활에 팔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인해 가족의 생활이 강화되었다.” 전에는 우리 가족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죠.”

이러한 회원들 때문에, 도미니카 지도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낙관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있다. 미래에는 아마 새롭고 색다른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많은 이들은 엠 러셀 벨라드 장로의 헌납 기도에서 희망을 얻는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약간 독특한 축복을 간구하셨습니다.”라고 로돌포 앤 보덴은 회상한다. 그의 가족은 6명이 모두 도미니카 공화국의 첫 말일성도 회원들이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민족과 국민들이 교회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물론 킴볼 대관장님이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바덴버그 형제와 자매는 현재 슬트레이크 그레이트 파크 스테이크, 그레이트 파크 와드에 속해 있다.

자녀들이 간증을 얻도록 돕는 방법

교회 모임에서 간증을 할 때에, 그것은 곧 영원한 진리에 대해 영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영화로운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확신이 포함된다. 간증은 의문이 생기거나 또는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진리가 도전을 받을 경우, 우리가 값지게 쓸 수 있는 가르침과 경험과 영적인 보화 등을 지축하는 영적인 은행 계좌로 일컬어져 왔다. 우리는 강한 간증을 소유함으로써 실망이나 좌절 또는 의심으로 인해 너무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또한 간증을 가짐으로써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품는 것은 물론 간증을 갖지 않을 때보다는 일을 더욱 잘하도록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

간증의 필요성

히버 시 김볼 장로는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러분은 닥쳐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 사업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어 온 빛으로는 견딜 수 없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각 사람은 자기의 내부에 있는 빛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빛이 없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올든 에프. 휘트니, *히버 시 김볼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45년, 450쪽;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정, 41쪽 참조)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때에는 부모의 신앙에 의지하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간증에 기대거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빛을 빌려가게 되지만, 그들이 성장을 하고 좀더 중대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빛을 갖추어야 한다.

부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갖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모범은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된다. 우리는 구세주의 생애를 우리 행동의 표준으로 삼음으로써, 우리 삶의 중심을 구세주에게로 향하게 하며, 자녀들에게도 생명력이 있고 활기에 찬 간증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을 미칠 수 있는가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빛은 우리의 가정 곳곳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사실 자녀들이 강한 간증을 갖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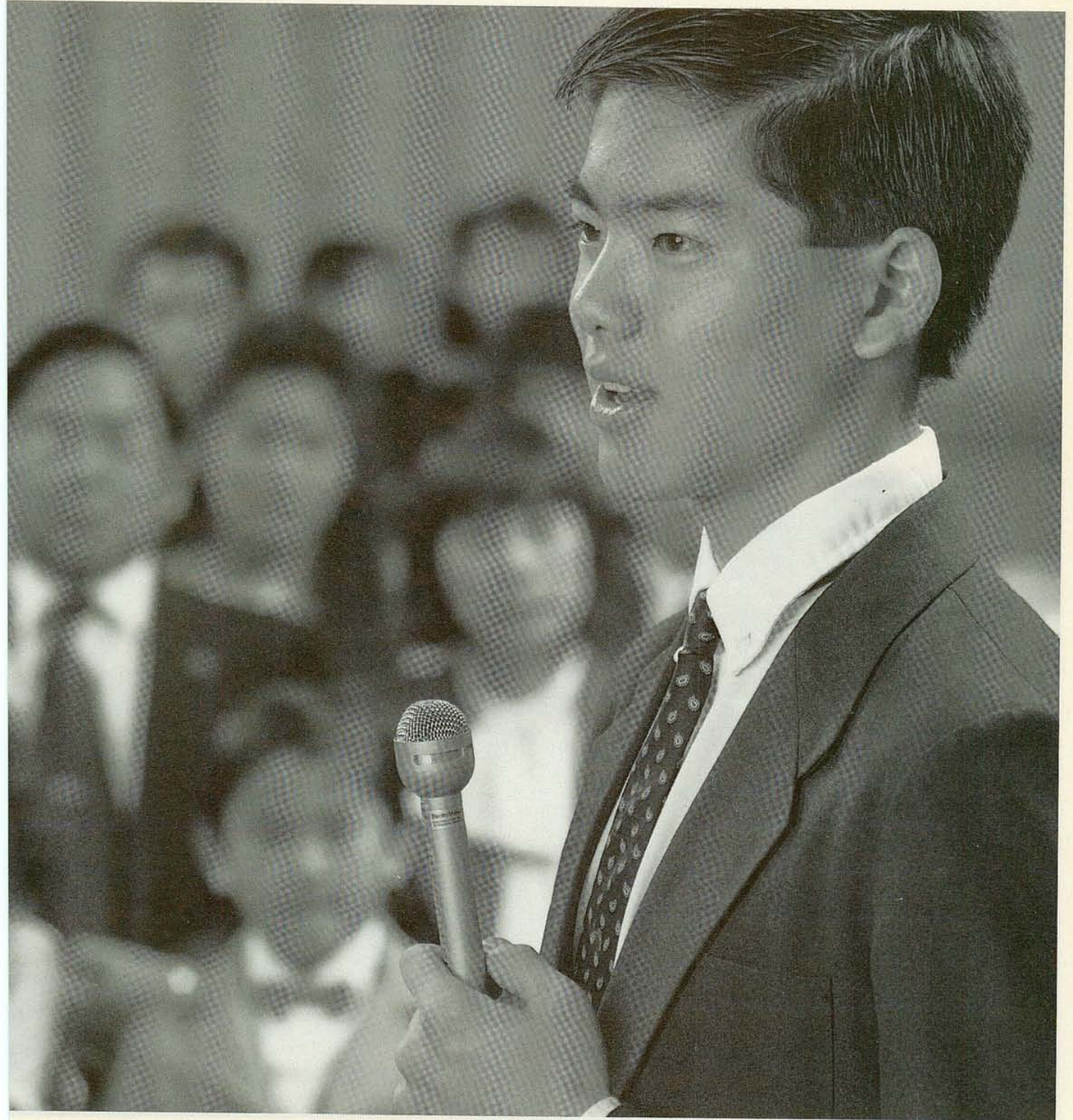
하나의 가정을 영적이면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영적인 가정이란?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가정이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시며, 살아 계시다는 확신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 성신이 임재하는 가정이다.
 - 모든 결정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내려지는 가정이다.
 - 행복이 물질적인 부에 좌우되지 않고 사랑과 화합과 함께 나누는 마음에 깃들어 있는 곳이다.
 -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존중되고 격려되는 가정이다.
 -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 등이 격려되는 곳이다.
 -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사랑스럽게 격려해 주는 곳이다.
 - “나”보다는 “상대방”이 존중되고,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시되는 곳이다.
 - 질서와 청결함이 있는 곳이다.
- 앞에 있는 항목들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려고 만들어진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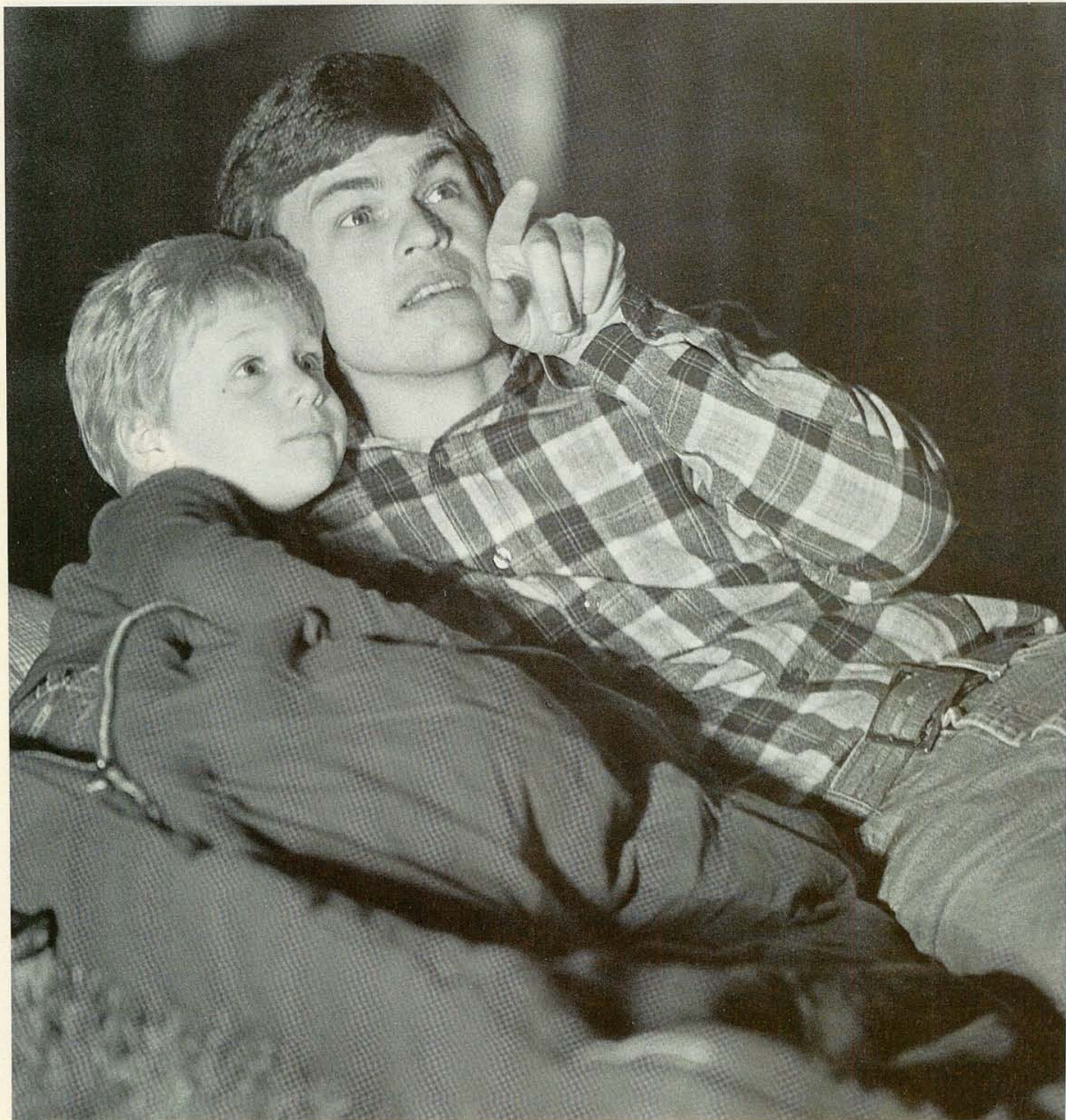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때에는
부모들의 신앙에 의지하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간증에 기대거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빛을

빌려가게 되지만, 그들이 성장을 하고
좀더 중대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빛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을 조금 덜 갖추고서도 간증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종종 “가르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서

자녀들의 태도가 진지해지면 마음속으로
지금 이 가르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아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항상 실천하는 가정은 매우 드물지만, 그렇더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 주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이러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신앙과 관련된 말

비록 우리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말할 때, 그 아이가 갖는 자긍심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자녀들이 듣지 못한다면 이 역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부모가 신앙과 관련된 말들을 사용할 때, 아이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은 커질 것이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간증을 들려줘야 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자녀들에게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단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가 느낀 것과 같은 간증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간증을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바로 가정의 밤 시간입니다.”(“간증을 얻는 방법” 로렌 시 딘 장로, 1972년 10월 연차 대회 : 1980-81 / 85년 상호부조회 교재, 영적인 생활, 제11과, 79쪽 참조)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간증과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원리에 대한 간증을 하고 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하고 나서 우리의 간증이 헛된 것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해서는 안된다.

간증을 위한 시간

영적인 느낌을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가정의 밤, 가족 경전 공부, 개인 접견, 가족 기도, 혹은 가족 회의 등과 같은 가족들이 갖는 특별한 시간의 정규 순서로써 간증을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연차 대회나 노년의 모임이 끝난 후에, 거기서 들고 느꼈던 것들이 참됨을 간증할 수 있다. 어떤 가족들은 가족 간증 모임을 가져 훌륭한 경험을 나눈 적도 있다.

아이들이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 금식 간증회에서 간증하도록 격려할

수도 있다. 자녀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듣게 됨에 따라 그들 또한 그 시간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형식을 조금 덜 갖추고서도 간증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종종 “가르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서 자녀들의 태도가 진지해지면 마음속으로 지극히 가르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이때에 우리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추억을 들려주면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수가 있다. 어머니가 갓 태어난 자녀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느낌을 각 자녀들에게 들려준다면 그 이야기를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또한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신들의 침례나 확인, 축복사의 축복, 혹은 성전 결혼 등의 영적인 중요성에 관한 느낌을 듣거나 그것에 관해 쓴 편지를 읽을 때 영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종종 우리는 말로써 할 수 없었던 것을 글로 쓸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아들에게 간증해 본 적이 없는 한 아버지는 선교 지역에 있는 아들에게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증거하도록 격려하는 편지를 매주 써서 보낸 경험이 있다.

살아 있는 간증의 은사

인간의 몸과 마찬가지로 간증도 영양분을 공급받고 보살핌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주님은 홍해를 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적으로 구출한 후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지 않아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는 동안 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있다. 사람이 자신의 간증을 사용하지 않고 잠자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약해질 수도 있다. 2년동안 선교 사업을 하며 사람들에게 신성한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 귀환하여 선교사를 봉사하던 때의 열의와 간증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열렬했던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다. 새로 침례받은 회원이 간증을 키우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공부해야 한다.

헤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간증이 내일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점점 커져서 결국 해처럼 빛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78년 3월호, 47쪽)

복음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다. 간증은 그것을 진실로 갖고자 하며 또한 복음의 가르침을 기꺼이 적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간증은 기적이거나 그 밖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신의 작용으로 조용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간증은 지속적으로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유지될 수 있다.

우리는 경전에 쓰여져 있는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정신과 마음에 증거를 받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리와 성약 8 : 2~3).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인도할 그들 자신의 마음의 빛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자녀들이 그 빛을 얻도록 돕기 위해 보낸 시간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보낸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

경전상의 지침

경전에는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다. 다음의 참조 성구는 자녀들이 영생에 이르는 곧고 좁은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강한 간증을 갖도록 부모들이 돕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출애굽기 18 : 20
 신명기 6 : 5~7
 잠언 22 : 6
 누가복음 15 : 11~32
 에베소서 6 : 4
 니파이이서 2 : 25
 모사이야서 4 : 14
 모사이야서 4 : 15
 교리와 성약 68 : 25
 교리와 성약 68 : 28
 교리와 성약 93 : 40
 교리와 성약 121 : 43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이야기함.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침.
 자녀들이 실수할 때 용서함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
 자녀들이 기쁨을 찾도록 도와줌
 자녀들이 험벗고 굶주리지 않게 하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함.
 아이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가르침.
 자녀에게 신앙, 회개,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 등의 원리를 가르침.
 자녀에게 기도하며 주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가르침
 빛과 진리 안에서 양육함.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꾸짖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인도할 그들 자신의 마음의 빛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자녀들이 그

빛을 얻도록 돕기 위해 보낸 시간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보낸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

전 세에서 우리는 하늘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곳에서 양육되었고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웠다. 우리는 발전을 위한 다음 세상에 대한 기대감에 넘쳐 “기쁘게 소리”(욥기 38 : 7)쳤다.

교리와 성약 138편 56절을 보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첫 교훈을 받았으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주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나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현세에서 똑같은 일을 하도록 하시지도 않았으며, 우리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도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적당한 때와 장소를 택해서 지상에 왔다. 모든 여성들은 각자 자신만의 삶과 자기의 일이 있으며, 또한 모두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세에서의 삶을 이해한다면 여성들이 현세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한다

각 사람의 삶과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특별한 사명도 맡기시지 않고 우연히 이 지상에 보내시게 된 것이라고 일순간이나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지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여로에 함께 동반하시어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특별한 목적을 깨닫도록 영감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성도의 빛, 1980년 6월호, 32~33쪽)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느낄 수 있는가?

경전에 있는 지침을 존중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 행로를 위한 가장 훌륭한 지침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러한 지침을 찾을 수 있는 곳 중의 하나는 경전이다. 시편의 작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 : 105) 라고 말씀했다. 경전을 매일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전 구절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어 왔는가?

다른 사람의 모범을 존중한다

라모나이 왕의 궁전에서 일하던 레이맨 여자 에이비시는 암몬과 라모나이 왕, 왕후, 그리고 다른 종들이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보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주님을 믿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사실을 알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녔다.(엘마서 19 : 16~17 참조)

한나는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만일 주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려 성막 안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서원하였다. (사무엘상 1장 참조)

한나의 사명이 에이비시의 사명과 다른 것처럼 우리들 중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며,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독특한 삶과 사명을 통하여 즐거움을 찾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훌륭한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받았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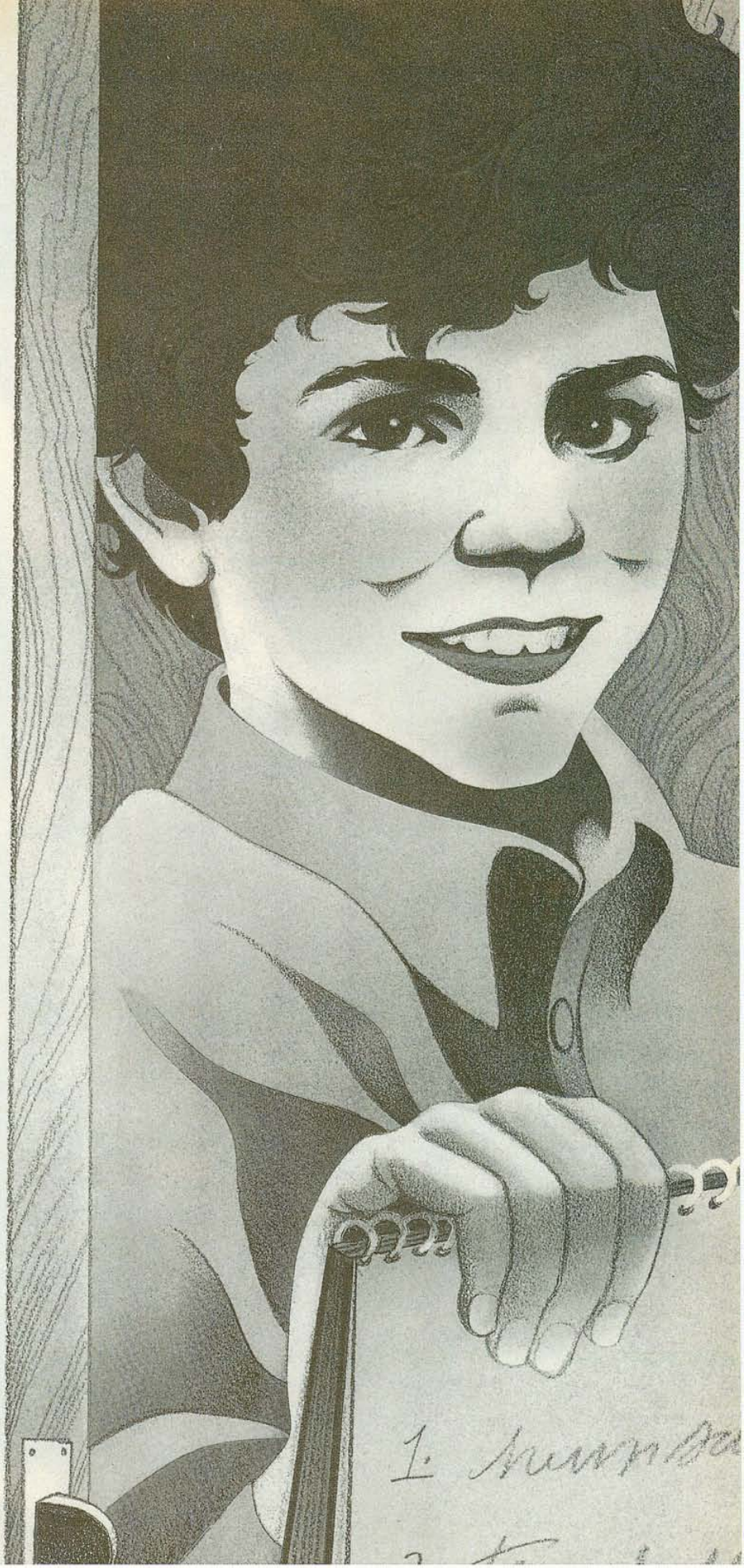
공정적인 훈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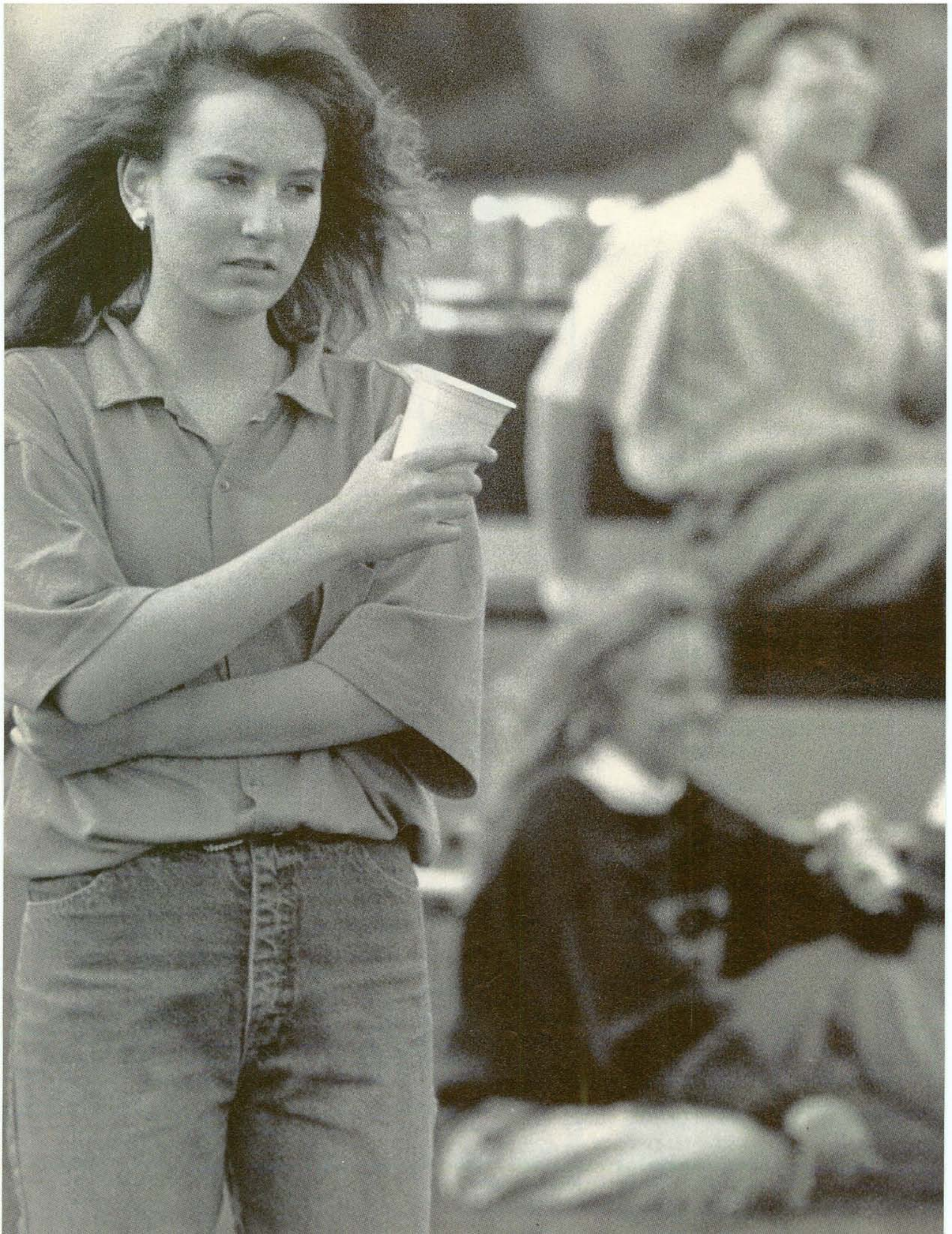
마리린 위태커

어느날 아홉 살 된 큰 아들이 어린 동생의 행동에 기분이 상한 나머지 큰 소리로 동생의 잘못에 대해 불평을 늘어 놓았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여러 차례 일어났었지만, 나는 속이 상했다. 그러나 이날은 문제 해결에 좀더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취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큰 아들을 자기 방으로 보내면서 동생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점 열 가지를 적기 전에는 방을 나와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들이 그 목록을 갖고 나타났을 때, 그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동생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는 일이 그의 부정적인 사고와 느낌을 없애 준 것이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이러한 교육 방식을 활용했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 사랑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람의 훌륭한 자질에 대해 찾아보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좀더 행복하게 되며,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욱 긴밀히 지내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로리 앤더슨 그림.





마약을 복용하라는 유혹을 물리침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제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하도록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으나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있을지에는 의문이 갑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을 해서 남들이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싫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하라는 유혹을 분명히 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대답은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답

형제님 혼자만이 알코올이나 마약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거나 만일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을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드립니다. 먼저 손에 맥주 병을 들고 계속 추근대는 친구와 접하기 훨씬 전에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형제님은 바로 지금 마음속으로 마약과 알코올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며 이러한 물질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마약과 알코올은 인체, 특히 신경계에 해로운 강력한 향정신성 화학 물질입니다. 뇌에서 “환락”을 유발시키는 화학 반응이 바로 인체를 파괴하고, 사람의 정신에 해를 가하며, 사용자의 정신적 감각을 저하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을 피하도록 권유하심으로써 의학적으로 현명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후에, 형제님은 마약과 알코올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또는 그러한

장소와 상황에 처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현명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위험한 장소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한 마약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되고 있는 중독자들에게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고 유혹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친구를 찾으라고 권유합니다.

형제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유해물질을 사용하도록 유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제님은 “아니오.”라고 대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을 대하지 않는 친구, 부모님, 여러분의 지도자, 세미나리 교사, 감독님과 그 밖의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그분들과 함께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형제님은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 또 언제 그런 때가 올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형제님은 “아니오.”라는 말을 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자존심과 자기애가 부족함을 암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한계를 짓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혹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개인적으로 승리를 하며, 재능을 키우고,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함에 따라, 자신을 더욱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주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형제님 자신을 위해 성공적인 일을 찾고 창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형제님은 자신의 의견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님이 필요한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일이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자기에란 형제님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죄인이거나 성도이거나 가리지 않으시고 똑같이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며, 형제님의 성스런 가치를 한없이 존중하십니다. 형제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는 이상, 그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형제님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나면, 형제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경우라도 자신의 성스러운 가능성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기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우리가 구세주를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과 영합하지 않는 결정을 몇 가지 내린다

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따름으로써 큰 기쁨과 축복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태복음 5:10)

형제님을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형제님이 시험에 직면할 때는 물론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형제님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형제님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님은 건강한 육신과 깨끗한 마음과 강한 정신을 축복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대담

소위 동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저 역시 형제님이 피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은 제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8년간 저는 이러한 악습의 노예가 되어 왔으며, 지금은 이와 같은 중독 상태를 극복하는 중입니다.

마약은 저에게서 삶에 대한 애착을 서서히 앗아가기 시작 했으며, 제가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거의 삶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뒤로 잡아 끌고 있는 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구”를 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현재 그 누구도 저를 약하게 흔들어 놓을 수 없으리만치 제 자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형제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는 형제님이 소망하시는 대로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친구를 단념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만일 형제님의 친구가 계속해서 옳지 못한 행위를 고집한다 해도, 그들과 더불어 타락의 길을 걸으려선

안됩니다.
익명

동료들의 압력을 이기는 열쇠는 바로 지금 “아니오.” 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다음 상황이 닥치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형제님의 마음 자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님이 즉시 사람들에게 솔직한 대답을 한다면, 대부분은 형제님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제님의 결정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친구가 아닙니다. 진실된 친구는 형제님을 사랑하며, 해를 끼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형제님의 진실된 친구이며, “아니오.”라고 말하는 형제님의 결정에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형제님을 항상 사랑하시며, 결코 형제님이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제이슨 힐러, 18세
아이다호, 리리



주님은 말일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시련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결코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니파이가 전한 충실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은 자녀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시지 않으시고는 절대로 명을 내리시는 일이 없음을 믿으십시오.(니파이일서 3:7 참조)

크리스티나 엠
리그즈, 17세
아리조나, 산들러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접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동료들의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된다는 것이 때로는 아주 무섭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음주나 흡연 또는 약물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겁내는 친구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놀랄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오백 명의 학생이 있는데, 저는 단 세 명의 말일성도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열 여섯번째 맞는 제 생일 파티를 위해 오십 장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초청장 하단에 “알코올, 담배 혹은 마약은 금합니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 초청장을 주면서 부모님과 저는 혹시 파티에 아무도 안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받은 오십 명 가운데 설흔 다섯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달 뒤, 저 역시 친구의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장 하단에 “알코올, 담배 혹은 마약은 금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이 년간에 걸쳐 저는 이와 유사한 초청장을 많이 받았습다.

형제님이 할 일은 바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라면 형제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흡연 혹은 음주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형제님이 예의 바르게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혹은 술이나 기타 것들을 금하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형제님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계속해서 강요를 한다면 형제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가치관을 받아들일 만한 새 친구를 찾으십시오.

마셀 시버트, 21세
플로리다, 매리트 아일랜드

아직까지 누군가가 형제님에게 담배를 권한 적조차 없다면 형제님은 운이 좋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조그만 카페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이르러 할 때 갑자기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사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집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간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주장하는 대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실수였습니다. 두번째 실수는 유독 저 혼자만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바보처럼 보여서 저의 신조를 깨뜨리고 몇 잔을 마시기로 한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음주 문제를 갖게된 시초였습니다.

저는 저 외의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를 느껴 보셨으면 합니다. 현실에 대한 모든 감각이 무디어져서 자신이 하는 일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므로 경계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형제님은 많은 눈물과 마음의 고통을 덜게 될 것이며, 아마도 형제님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형제님이 쇠막대기로부터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쇠막대기를 결코 놓치는 적이 없다면 형제님은 많은

고통과 시간 낭비와 당혹스러운 마음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형제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제님을 위해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익명

형제님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미 그와 같은 질문에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님의 친구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마약이나 알코올을 사용하겠다고 묻거든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뒤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들은 형제님의 의지력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자신에게 마약이나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두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형제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 두번째에는 이야기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앤디 존슨, 15세
캘리포니아, 휴슨



중요한 것은 형제님에게 그릇된 행위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을, 형제님이 잘알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약과 알코올에 대한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형제님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안심할 만한 친구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제님 자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곳이나 혹은 지혜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받을 수 있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갈 가치가 없습니다.

마약과 알코올을 사용하도록 유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로부터 형제님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형제님의 가치관을 지키며 옳다고 알고 있는 바를 위해 굳게 서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보다 더 훌륭한 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의 친구들이 참된 친구들이라면, 그들은 형제님이 그릇된 일을 하도록 압력을 주는 일은 생각조차 않을 것입니다.

리사 엠 에이레스,
16세
캘리포니아, 필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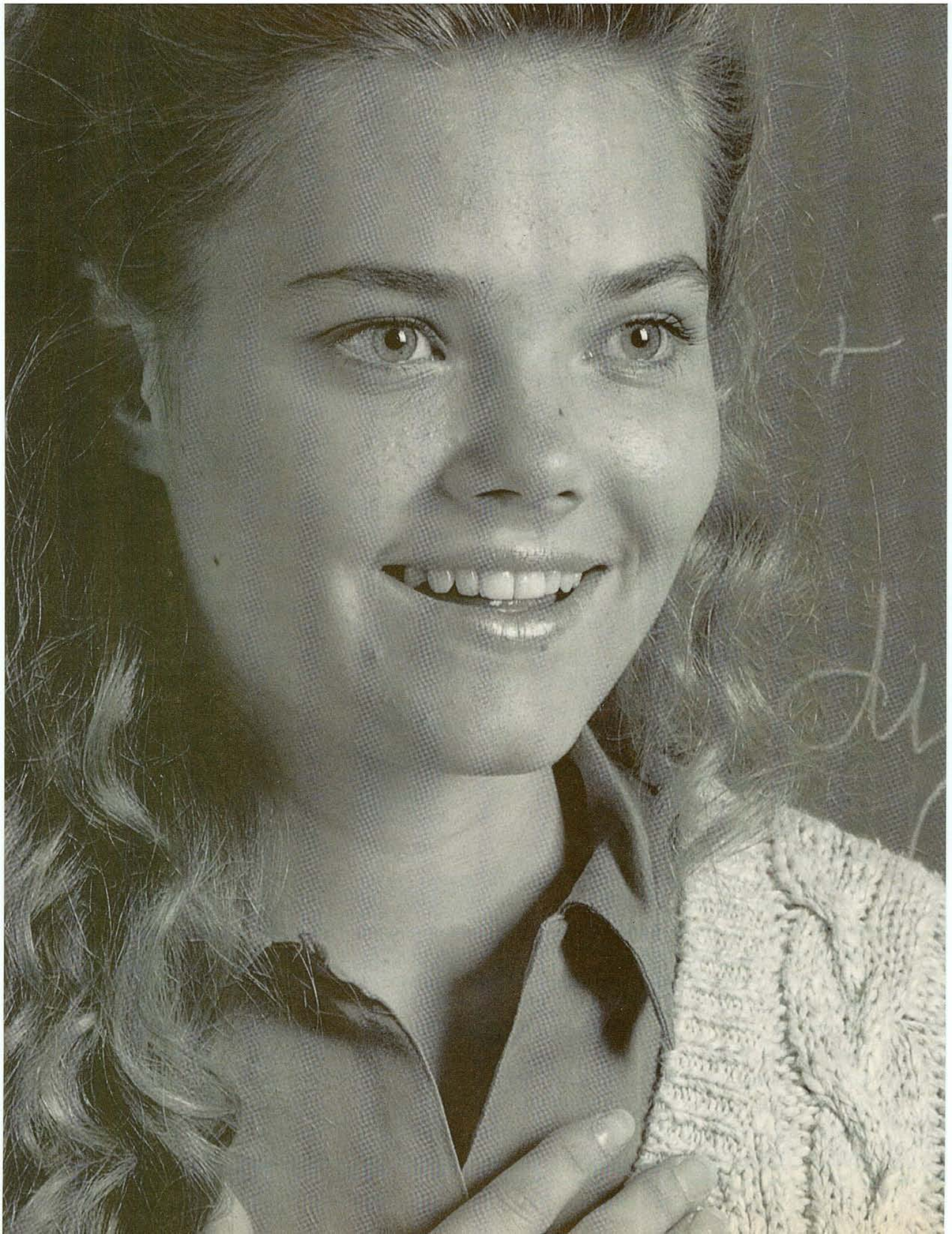


저는 형제님의 느낌이 어떤지 압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마약과 알코올을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약과 알코올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일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친구들과 계속 사귀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거듭 이르노니, 독한 음료는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요, 다만 몸을 씻기 위한 것이니라.”라는 교리와 성약 89편 7 절을 또한 주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다는 약속도 떠올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 : 13 참조)

주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시며 형제님을 잃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벤자민 잭프레이, 15세
뉴 햄프셔, 로체스터



마음속으로 확실히 알고 있다면

설리 플렌

수업이 시작되었으며, 내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출석을 부른 뒤, 케네스의 발표를 시작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내가 연설을 하기까지는 15분에서 20분이 남아 있었다. 나는 왜 내가 오늘 발표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나의 “가장 존경하는 미국인”으로 요셉 스미스를 선택했을까? 하고 생각했다.

선생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반원이 침례교 회원이었으며, 전체를 통틀어서 나만 유일하게 몰론이었다. 요셉 스미스에 관한 주제를 선택한 그날엔 내가 꽤나 용기가 있었음에 틀림없었으리라고 생각했다.

케네스가 발표를 거의 마쳤다. 그가 발표한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내 차례였다.

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미국인’은 요셉 스미스입니다. 그는 …에 태어났고…” 라고 시작을 하여 약 10분간 발표를 했으며, 그런 대로 괜찮았다.

“질문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물으셨다.

너무도 조용한 나머지 숨소리조차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내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어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했다. “요셉이 세운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빠뜨렸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흔히 몰론이라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다. 그 금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모로나이는 누구였는가? 어떻게 그가 금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는 보통 늘 제기되었던 질문인 일부다처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왔다. 이때쯤 나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다. 그리고 한 학생이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아마도 나는 그 질문을 한 학생에게 평생 감사할 것이다.

이 질문이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내 마음과 교실 가득히 주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질문한 학생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빌,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내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옳다고 느낀 적이 있었니? 내가 마음속으로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너의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니?”

교실 내에 침묵이 흘렀다. 심지어는 선생님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

나는 그러한 간증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또한 그 간증을 마음속에만 간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빌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

나는 반원들 앞에 서서 30분이 넘도록 질문에 대답을 했으며, 우리는 심지어 쉬는 시간조차 지나쳐 버렸다. 그날 남은 시간 내내 기분이 좋았다.

이 경험으로 인해 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

그리스도의 생애

칼 하인리히 블로흐(1834~1890) 그림

제2부

지난 호에서 우리는 구세주의 생애를 다룬 덴마크 화가 칼 하인리히 블로흐의 그림에 대한 기사를 소개한 바 있다. 본 2부에서 우리는 블로흐의 작품을 좀더 선정해 신기로 했으며, 이 유능한 화가의 생애에 대해 더듬어 보고자 한다.

이 그림들은 물론 블로흐의 상상력과 재능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해군 사관 생도가 되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십대 초반에 이르자 블로흐의 예술적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1849년 그의 나이 15세 때, 그는 코펜하겐 미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20세 때 첫 작품 전시회를 열었으며, 25세 때 연구 여행 보조금을 받아 로마로 떠났으며 그곳에서 1865년까지 머물렀다.

로마에서 그는 이탈리아 대기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위대한 사건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덴마크의 역사적 사건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덴마크에서 크게 발전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만년에 그는 왕립 미술원 원장으로 봉사했으며 여러 나라에서 크게 인정받았다.

이탈리아 수학이 끝날 무렵 -그가 아름답고 친절한 아가씨 엘마 트레프카와 결혼하기 3년 전에(둘은 후에 여덟 자녀를 두었다)- 31세의 칼 블로흐는 감동할 만한 의뢰를 받았다. 즉,

그는 1859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프레드릭스버그성 교회 예배당을 위해 스물 세 장의 그림을 새로 그리기로 한 것이다. 덴마크의 미술 감정가들이 볼 때 블로흐의 화풍은 현대적이며 독창적인 것이었다. 그의 그림에는 이탈리아에서 보낸 생활을 보여주는 추억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이러한 스물 세 장의 그림 이외에도, 블로흐는 또한 덴마크와 스웨덴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적어도 여덟 개의 제단 위에 붙일 그림을 담당했다. 그의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 그는 부식 동판술을 개발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수요는 대단해서 그가 죽기 2년 전 한 덴마크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블로흐는... 당대의 뛰어난 화가요 동판 제작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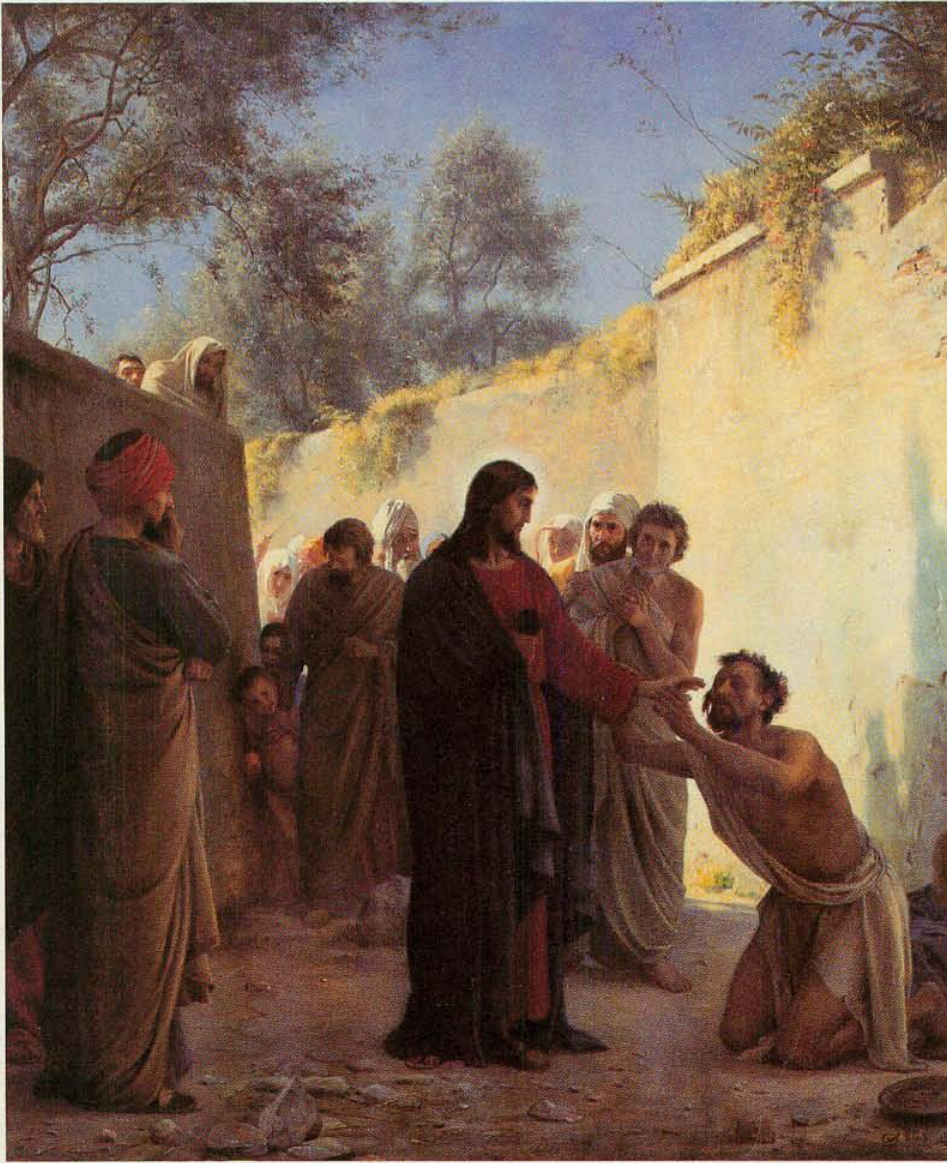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세주에 대한 예술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칼 블로흐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다음과 같은 말씀의 참 뜻을 알 수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4~5, 11~12)-편집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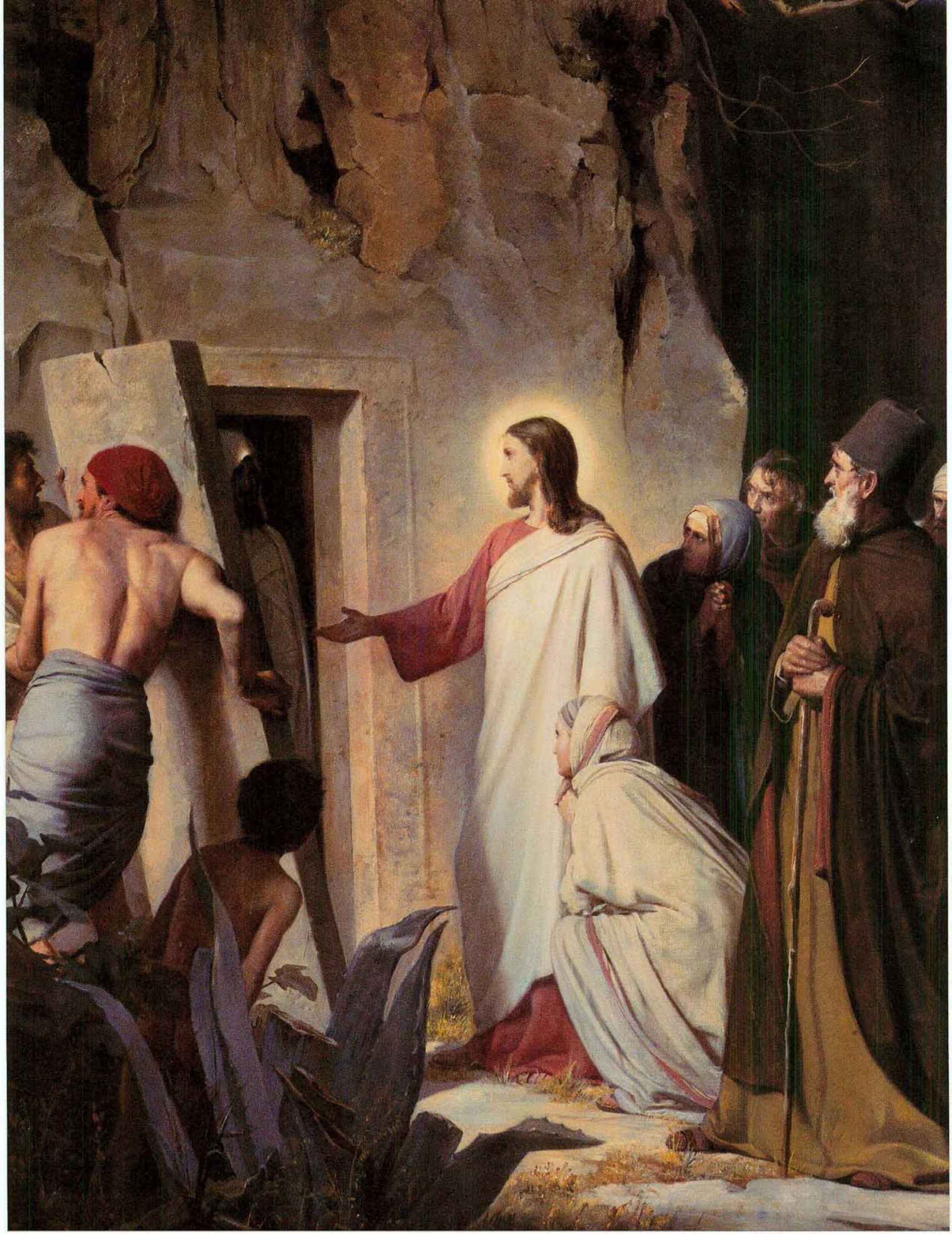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니라”(마가복음 9: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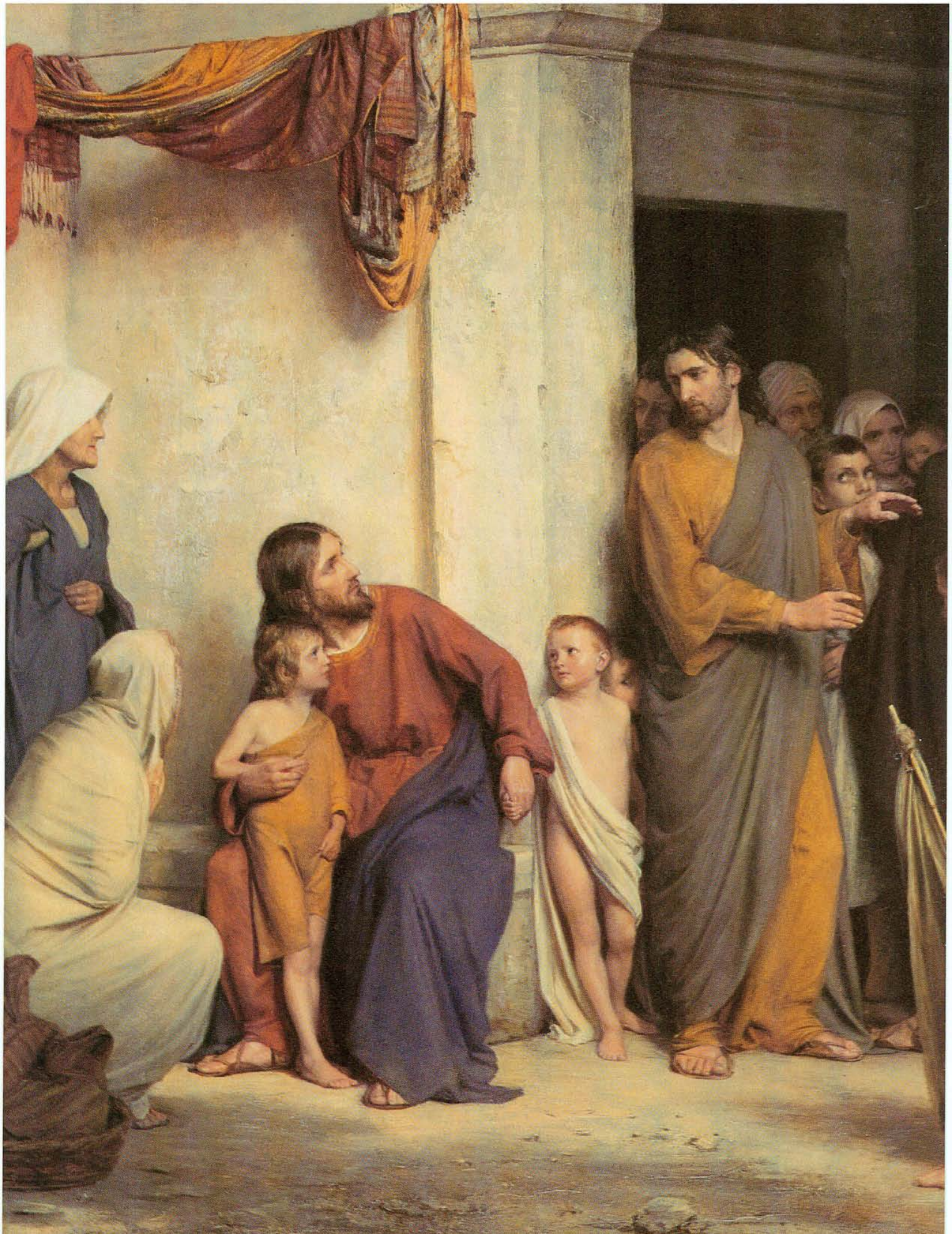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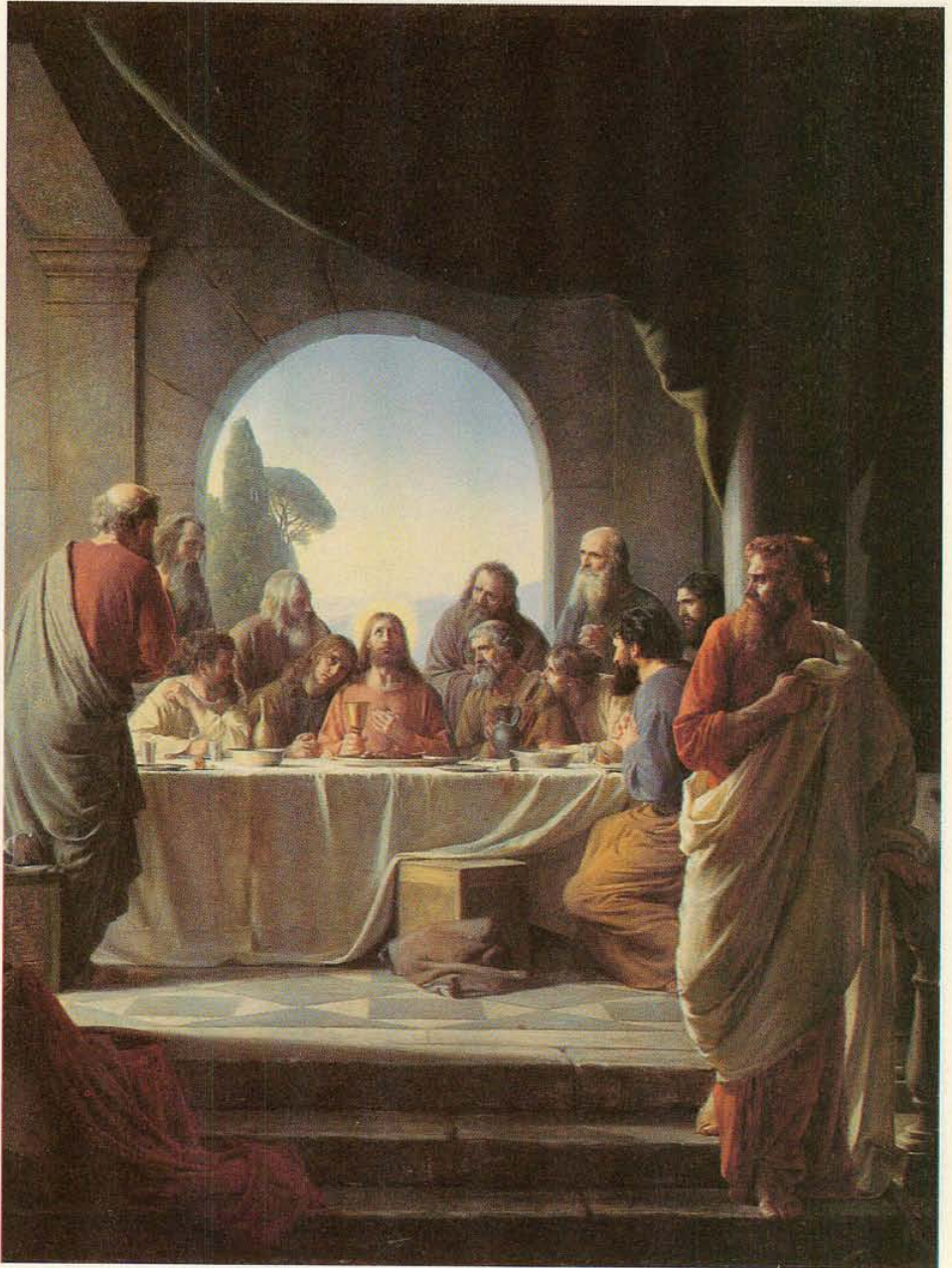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11 :
43~44)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한복음 9 : 1, 6~7)







“때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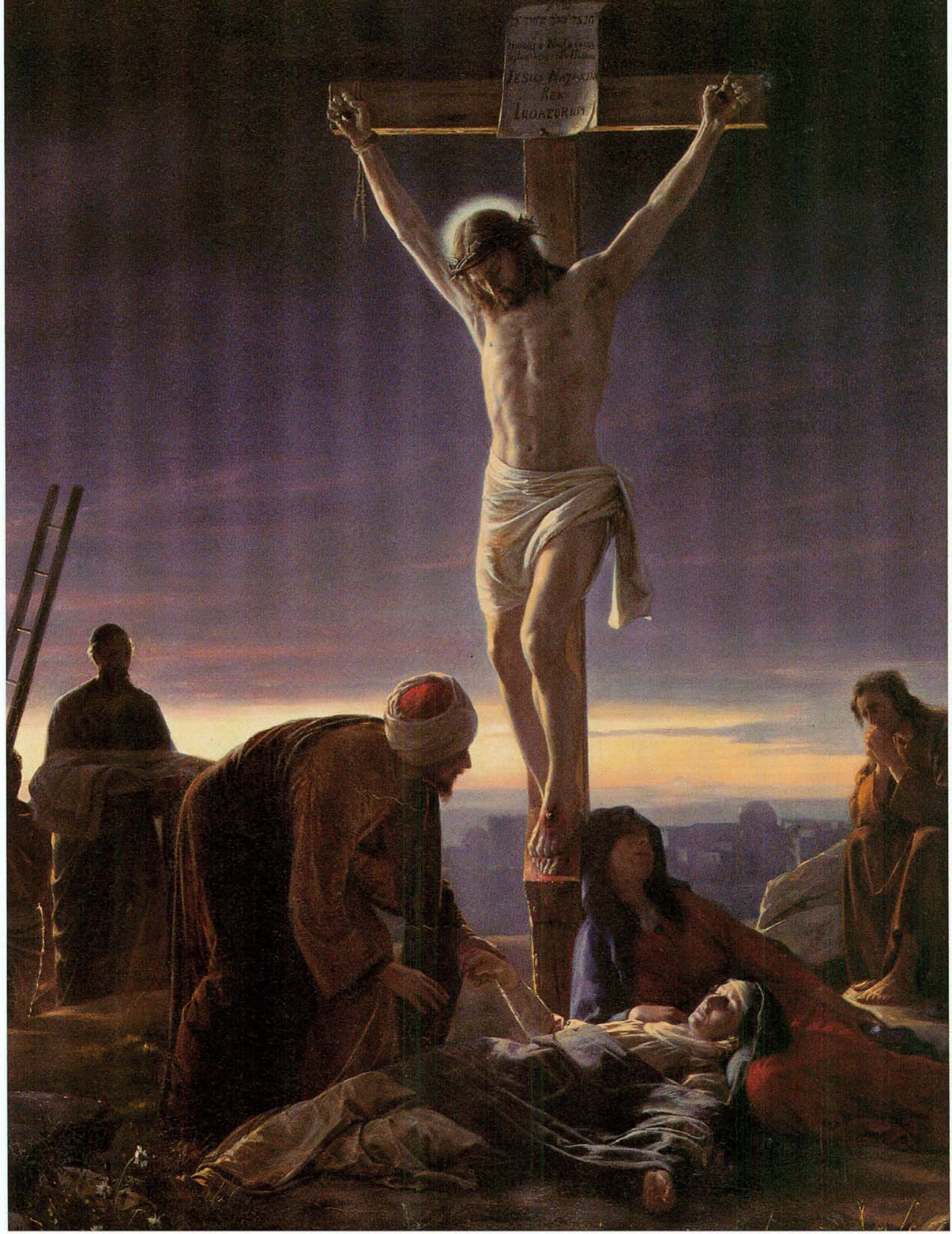
(마태복음 19 :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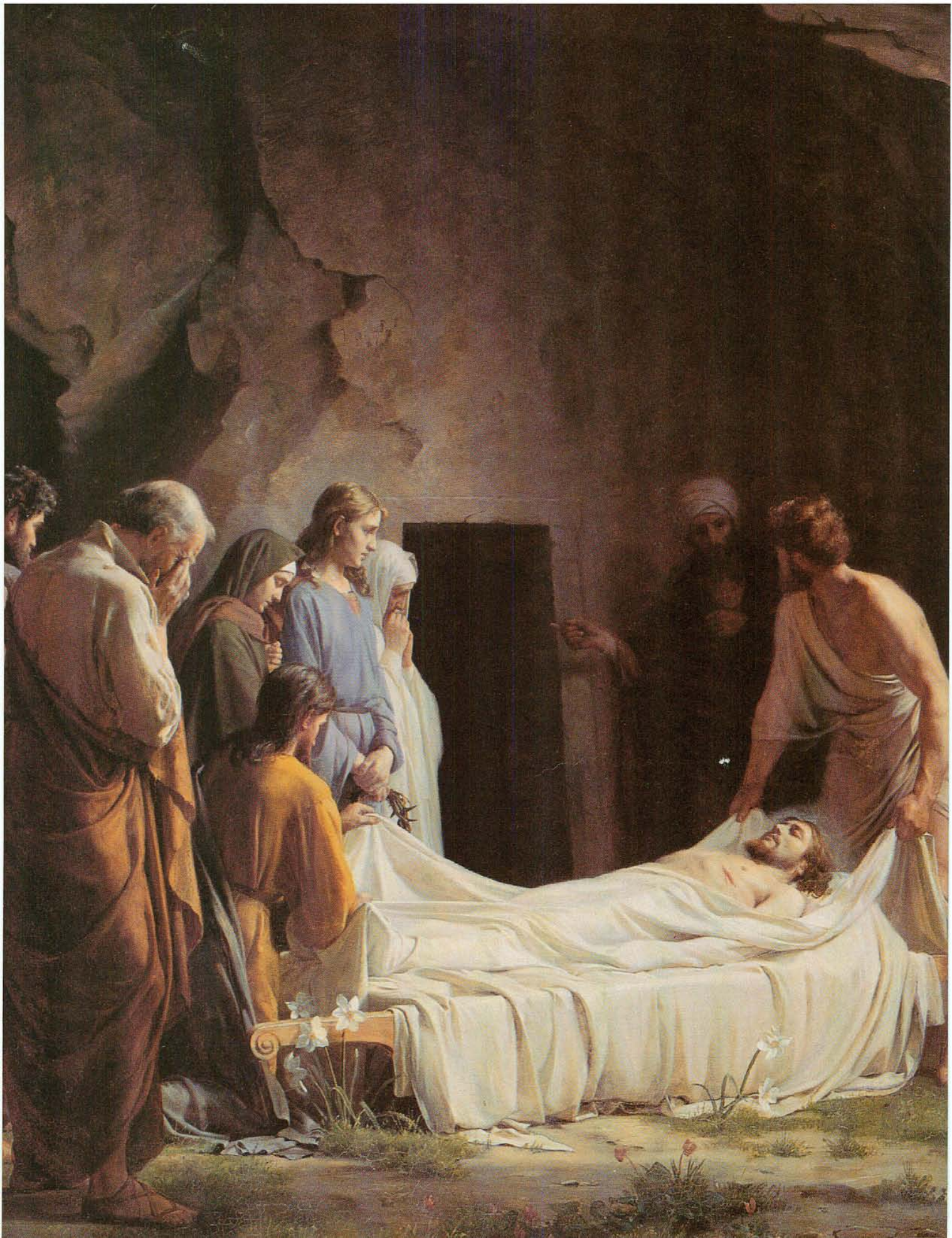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누가복음 22 : 15~16)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줄
 아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 복음 19 :
 2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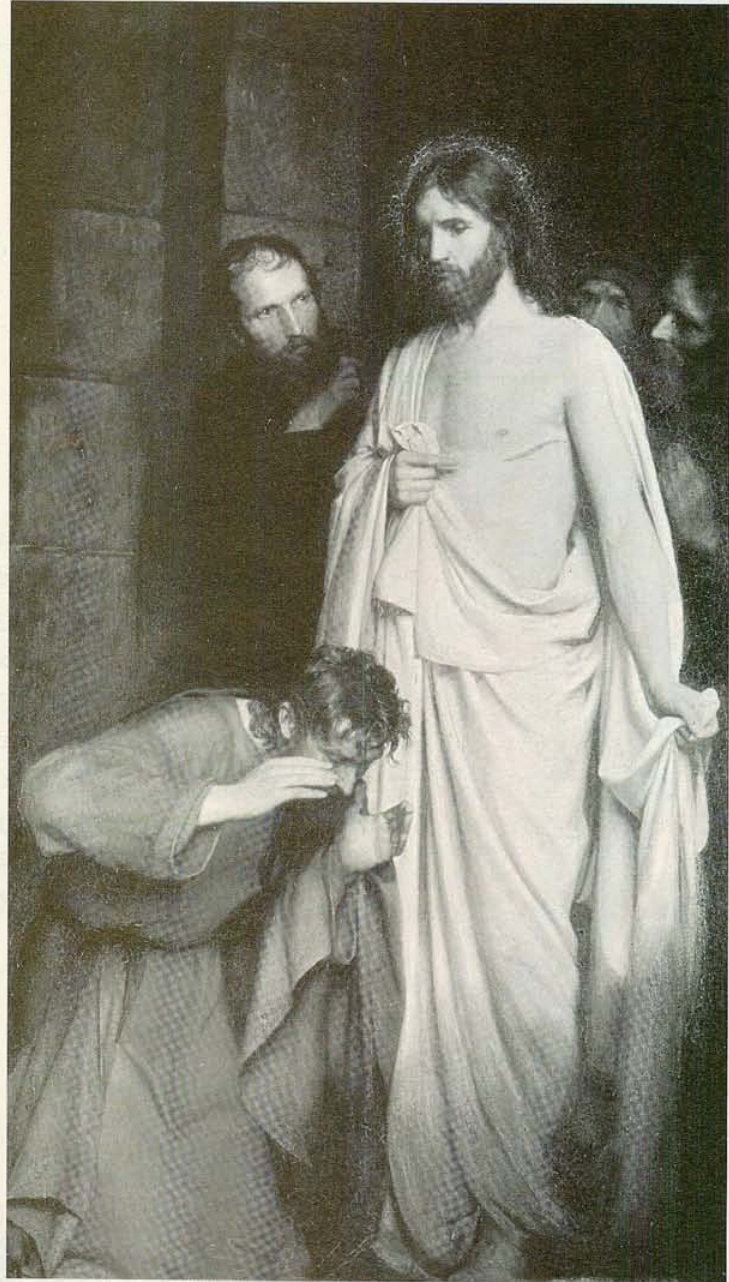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 : 61~62)





자비 조상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썼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를
저기 두니라”
(요한복음 19 :
40~42)



“이성령은 도마”
도마 크리웁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 : 27~28)



아버지 성전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갈 준비를 하면서 감독님과 가졌던 첫번째 성전 추천서 접견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독님은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감독님은 이 접견을 우리 집, 헛간, 들판, 자동차 혹은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제가 기억할 만한 특별한 계기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감독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하기 위해 저와 시간

라 나의 추천서

약속을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전에 저와
접견이나 약속을 하시기 위해 전화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일이 제게는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감독실에서 만나기로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독실에 도착했을 때, 감독님의 책상은 여느 때와는 달리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책상은 서류와
책들로 거의 가득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책상 위엔
경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와 공적으로
접견하는 이 시간이 제게 하나의 배움의 기회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경전을 건네 주시면서 다음 성구를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59 : 6) 이 중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의 초점은 깨끗한 생각에 맞춰 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행동으로 연결된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청결하고 순수하면, 우리는 결코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아버지는 경전을 들고 다음의 성구를 읽으셨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리와 성약 89 : 18~21)

주님의 그러한 약속을 마음에 간직한 채, 우리는 우리의 영을 위해 육신을 건강하고 건전한 집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지닐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육신에 거해야 합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다시 제게 경전을 건네 주시면서 다음 성구를 읽게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가운데 작성될 기록이 있으리니, 그 기록중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견자와 번역자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장로로 불리우리니,

“성령에 감동되어 교회의 기초를 닦으며 이를 가장 거룩한 신앙으로 세워 일으키리라.

“이 교회는 너희 주의 천 팔백 삼십년 넷째 달 곧 사월의 여섯째 날에 조직 설립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교리와 성약 21 : 1~4)

우리는 예언자를 존경하고 지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의 예언자가 우리를 잘못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 삶의 확실한 기초가 됩니다.

아버지는 다음 성구를 읽으셨습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 : 20~21)

우리는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및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시험으로서 십일조와 헌물을 주님께 바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서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걸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 서 계시더라. 주의 발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와 음성이니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 (교리와 성약 110 : 1~4)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분의 속죄와 관련된 영원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의 은사, 즉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은사를 받기 위해 이렇듯 중요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전 추천서를 작성하신 후 제가 거기에 서명을 하게 하였고, 따뜻하게 악수해 주시면서 제가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함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를 통과했으므로 매우 기쁜 마음으로 감동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후 저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을 때 만큼 성전 추천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 감명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스테이크에는 보스턴의 빈민 지역에 사는 훌륭한 미망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계를 잇기 위해 무척 애를 썼지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길 원하지 않는 자립심이 강한 자매이었습니다. 그분은 좀더 살기 좋은 동네로 이사갈 여유가 없었으며, 주변 이웃에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으므로 집울타리 안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상점에 가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심지어 땅으로 때밀려 넘어진 상태에서 돈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외출할 때면 신권을 지닌 형제들이 함께 있어 주길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를 위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 문을 통해서 “누구세요?” 하는 그분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반복해 말하고 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 추천서를 문 밑으로 밀어 넣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분명한가를 확인하도록 말입니다.” 성전 추천서를 문 밑으로 밀어 넣고 나면 그분은 걸쇠를 벗겨서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얼마나 상징적인가에 대해 종종 생각해 봤습니다. 자그마한 종이 한 장인 이 성전 추천서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가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함을 나타내 줍니다.

저는 우리가 늘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되어, 모두 정기적으로 꾸준히 신권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 우리의 현재의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허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성스런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함을 나타내는 이 명백한 증표(즉, 성전 추천서)를 소지할 자격이 있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리를 배우며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원리에 충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올바른 원리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온 생애에 걸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전 추천서에 늘 합당하게 생활하며 추천서 접견시 제시되는 질문에 진실된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





함께 지냄으로써 선해짐

목 직한 손이 존과 내 어깨에 와 닿으면서 “얘들아, 잠시 나 좀 보자.” 하는 큰소리가 우리 뒤에서 들려왔다. “너희들 물건이 아닌데 갖고 있구나.”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내 친구 존은 그렇지 않았다.

존은 그의 어깨에 닿은 손에서 벗어나려고 어깨를 움츠리며 우리에게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온 사람을 쳐다보기 위해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짓도 안했어요.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시죠?”

그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너희들이 방금 나온 저 가게의 관리인인 케나드라고 한다.” 그 남자가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그 사탕을 훔치는 것을 보았어.”

사탕을 훔치다니? 나는 존을 쳐다보았다. 존은 계속 언쟁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막 이것을 샀는데요.”

“자, 꼬마야, 나는 네가 저 사탕을 집어서 네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보았던 말이다. 그리고는 네가 사탕 값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나가서 여기 밖에서 함께 일에 가담한 친구와 만나는 것을 봤단다.”

그는 나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거야.” 나는 내 친구가 가게를 나서자마자 네가 사탕을 집으려 손을 내미는 것을 보았어.

비록 넌 사탕을 훔치지지는 않았지만, 네 친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훔친 물건을 같이 나누어 가진 이상 너 역시 같은 죄를 범한거야.”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시다.”

“네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아네요, 그럴리가, 전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무엇을 훔치려 했다는 것은 정말 몰랐어요.” 나는 케나드씨에게 존이 돈이 약간 있으니 얼른 가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가지고 나오겠으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케나드씨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 침대 상점털이 녀석들과 말씨름이나 하며 하루를 다 보낼 수는 없어. 너희들 이름이 무엇이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이름을 받아 적고는 우리를 다시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모님들께 전화를 걸었다. 나는 잘못된 일도 없이 억울하게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비난받게 되어 몹시 화가 났으며,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이런 곤란한 지경에 빠뜨린 존에게도 분노가 치밀었다.

케나드씨의 사무실에 함께 앉으면서 존은 “미안해!” 라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나만큼 속상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않아, 크리스, 미안하게 됐다. 잡히리란 생각은

못했어. 전에는 한번도 안잡혔거든.”

“글쎄 그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좀 해, 알겠니?” 우리는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와 나는 차에 남게 되자, 나는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내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들으신 후, 자동차에 시동을 거셨다. 차가 그 가게를 벗어나게 되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 나는 너를 믿지만, 케나드씨가 너를 못믿는다고 해서 그분을 탓할 수는 없어. 너는 그것을 인정해야 해. 네가 죄를 범한 것으로 생각될만도 해. 이런 경우가 바로 함께 공모해서 죄를 지은 경우가 되는 것이야. 아마 내가 너에게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을거야. 그렇지 않니? 오늘 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상점털이처럼 보였을게다.”

그 사건이 있는 지 수 주 내지 수년이 흐르면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 특히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의해 평가받는다라는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존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내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친구들을 올바르게 사귀어야 함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행히, 내게는 함께 지냄으로써 선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윌트와 리즈 두 친구는 내게 참 좋은 벗이며,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그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당시 나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열성적인 운동 선수였다. 나는 운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 친구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함께 농구 경기를 하곤 했던 친구들이 주말마다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며 지냈다. 나도 몇 번 파티에 가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의 행동을 보는 것이 싫어서, 오래 사귀던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렸다.

내가 물론 친구인 윌트와 친하게 된 때가 바로 그 무렵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그와 나는 그보다는 더 좋은 일을 찾고는 했다. 윌트가 술이나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윌트는 내가 좀더 훌륭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 친구로부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라는 압력을

전혀 받지 않았다.

윌트는 욕설을 하지도 않았으며,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언제나 잘못을 고쳐 주었다.(대부분의 경우) 윌트는 예의바르게 행동했으며,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좀더 점잖게 행동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윌트도 열성적인 체육 선수였지만, 그는 학업도 이에 못지 않게 중시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내가 어쩌다가 얻고는 했던) 좋은 성적을 받았다. 윌트와 친구가 됨으로 인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음에는 틀림없다.

물론, 윌트 역시 그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나에게 친구로서 약간의 압력을 주기는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는 했다. “이봐, 크리스, 너는 몰몬이 되는 것이 좋을듯 싶어. 너는 술·담배도 하지 않고 마약도 가까이 안하잖아. 사실 어느 모로 보나 너는 몰몬이나 다름없어.” 좀더 친구로서 사이가 가까와지면서, 우리는 그의 교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나는 다른 말일성도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윌트의 여자 친구인 리즈이다. 리즈는 매력적이고 발랄한 몰몬 소녀였으며, 나는 그녀를 좀 지나치리만치 놀려주곤 했다. 리즈는 완전한 여성이었다. 우리가 서로 좀더 가까와지게 되자, 그녀의 훌륭한 영향력이 내게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나는 욕설을 그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카톨릭 신자인 나로서는 종교를 바꾼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윌트와 리즈 같은 훌륭한 친구들 덕분에 좀더 쉽게 구도자가 될 수 있었다. 리즈는 내게 진리를 구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격려해 주었으며, 또한 윌트와 리즈는 내게 간증을 얻게 되어 침례받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의 압력이 얼마나 나쁜 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정말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함께 사귀면서 지냈던 친구들을 돌이켜 볼 때, 친구들의 압력이 또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내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의 영어과 조교수인 크로우 형제는 현재 라이에 하와이 노스 스테이크의 집행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어티이라



요셉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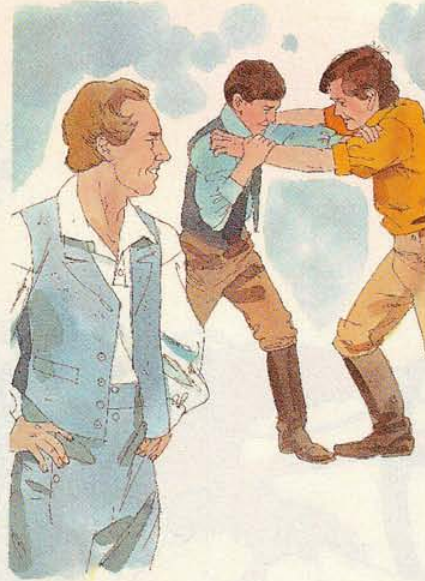
켈렌 리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심으면서 보냈습니다.





예언자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요셉이 좋아하는 활동 중의 하나는 레슬링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레슬링은 주로 상대방의 균형을 잃게 하여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청년들과 소년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소리치며 열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레슬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 레슬링 시합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말로 챔피언처럼 보이는 몸집이 유난히 큰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쓰러뜨리지 못하자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언자와 겨루고 싶어했습니다.



품만그린

시합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예언자는 그 사람의 목덜미와 바지 뒷 부분을 잡아서 옆에 있는 개천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예언자는 그 젊은이를 일으켜 세워 등을 두드려 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이런 일로 신경쓰지 말게.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애들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네.”



요셉은 비록 초대 대관장으로서 바쁜 생활을 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월의 여왕

비바라 웰즈

엘리자베스는 할머니 곁에 편안하게 앉아 조그만 손으로 할머니의 빛바랜 파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하얀 할머니의 머리 몇 가닥이 엘리자베스의 뺨에 닿아 있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 주세요.” 엘리자베스가 청얼거리듯 말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할머니가 교회에 들어와 여기 캐나다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 보낸 소녀 시절 이야기 해 주세요.”

“가만 있자, 그것 참 오래 전 이야기구나.” 할머니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할머니가 자란 마을에서 열리던 5월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던가?”

엘리자베스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 저었다.

“베스야, 그때는 정말 멋진 시절이었던단다. 5월의 첫째 날에 동트기 전에, 나와 언니 동생들은 우리 집을 장식할 꽃과 나뭇가지를 꺾으러 숲으로 들어갔단다. 그날 아침 나의 어머니는 나뭇잎과 야생화로 우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래부를 때 쓰고 다닐 왕관을 만들었지. 그러나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5월의 여왕이었던단다.”

“정말 할머니 마을에는 동화에 나오는 여왕이 살고 있었나요?”

“아니란다, 그 여왕은 5월 첫날에만 여왕이었어.” 할머니가 대답했다. “마을에서 가장 예쁜 소녀를 뽑으면, 그 소녀는 꽃마차를 타고 마을 변화가까지 행진을 했단다.”

“할머니도 5월의 여왕으로 뽑힌 적이 있나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아니,”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다. “물론, 나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지만, 난 너무도 평범한 소녀였기에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지.”

“그럼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야생화로 만든 왕관을 쓴 5월의 여왕은 자신을 위해 열리는 봄의 축제를 주관하기 위해 5월의 기둥(5월제를 축하하기 위해 꽃이나 리본으로 장식한 기둥)으로 나아갔단다.”

“5월의 기둥이 뭐죠?”

“그 기둥은 5월제날 아침에 벤 키가 큰 나무인데, 가지를 모두 쳐낸 후에 녹색 잔디가 깔린 마을 마당에 세워진단다. 나무 꼭대기에는 형형색색의 무지개 빛 꽃과 리본이 달려 있었지.”

“그때 축제가 시작되나요?”

“그래, 5월의 여왕은 꽃으로 만든 문 아래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기둥을 빙빙 돌며, 봄을 즐기는 가운데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았어. 이 할머니가 매년 처음으로 라일락

꽃향기를 맡을 때면, 다시 영국에 사는 한 조그만 소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머니, 방금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그만 집에 가봐야겠어요.” 엘리자베스가 할머니 뺨에 입맞추며 말했다.

4월의 마지막 주 내내 비가 내렸다.

엘리자베스는 “제 때에 날이 개긴 틀렸어. 모든 것이 틀어졌어.”라고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 보았다. 그러나 5월의 첫날 아침에 햇님이 구름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대지에 빛을 내려 따스하게 해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불을 걷어 내고, 힘차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부모님이 아침 식사하러 아래층으로 내려오기도 전에 식사를 끝내고 부엌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허둥지둥 대지?” 아버지가 물었다.

“아빠, 오늘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주님이 재미있는 것도 좋지만 집근처에서 놀도록 해야 되요.” 어머니가 말했다.

“예, 그럴게요. 엄마, 약속해요.”

세 시간 동안 엘리자베스는 헛간 뒤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때때로 자기의 방까지 뛰어올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층에서 어머니는 엘리자베스가 옷장 서랍을 쿵쿵거리며 여닫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엘리자베스가 내려 오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정오가 조금 지나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흥분되어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너라. 베스야. 과자를 막 구워 냈는데.”

“아니예요, 할머니, 지금 빨리 저하고 갈 데가 있어요! 할머니에게 라일락 꽃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 꽃이 헛간 뒤에 피어 났어요.”

“놀랍구나! 가서 꽃을 꺾어다가 거실에다 꽃아 놓자구나.”

할머니는 헛간 모퉁이를 돌아자마자 너무 놀라 입이 벌어져 단힐 줄 몰랐다. 예쁜 머리 리본으로 장식된 어린 복숭아 나무 가지가 향기를 내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또 나무로 만든 흔들 의자는 튜립과 수선화로 장식되어 여왕의 보좌로 변해 있었다.

“여왕이시여, 이곳에 앉으소서.” 엘리자베스가 여왕의 시종처럼 말했다. “5월 축제가 막 시작되려 하옵니다. 여왕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5월의 여왕이십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라일락 꽃으로 만든 왕관이 머리 위에 씌여졌다. 빛바랜 앞치마를 무릎 위에 우아하게 펼쳐 놓고, 할머니는 엘리자베스가 복숭아 나무로 된 5월제 기둥을 돌며 춤추는 것을 바라보며 너무도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눈을 깜박거렸다. *



성신



간결하게

$J = 126-138$

C (C#dim) G⁷ C

1. 주 세 상 계 실 때 약 속 해 주 셧 네 성
 2. 신 권 권 능 으 로 화 속 인 을 받 으 면 우

F C G⁷ C

신 을 보 내 우 리 를 인 도 하 리 라 고 성
 리 를 인 도 하 시 는 성 신 받 게 되 니 성

(E⁷) F B⁷ Em

령 은 속 삭 이 네 작 은 소 리 로 하
 의 작 은 소 네 들 을 수 있 네 하나

A⁷ Dm C G⁷ C

나 님 과 그 리 스 도 증 거 해 주 시 네
 언 제 나 그 빛 따 라 바 른 일 행 하 리

작사 및 작곡: 진 피 띠러

판권 소유 © 1977, 1989 LDS.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친구, 몽 사람들

제니퍼 브라스 젠킨스 ·
샌디 브라스 젠킨스



고우 모우아

몽족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음식 먹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젓가락 사용법을 모릅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하러 고우 모우아의 집에 갈 때면, 고우가 저에게 보여 준 것처럼 하얏고, 쫘득쫘득한 쌀떡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고우는 같이 놀아 줄 사촌은 많이 있지만, 형제나 자매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몽족 사람들처럼 고우의 가족들도 라오스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유타 산맥에는 호랑이나 비단 뱀은 없었지만, 몽족 사람들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도 여전히 두려운 것은 많았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모르고, 저는 몽족의 언어를 모르지만, 몽족의 언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솔트레이크 스테이크 몽족 지부에서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했는데, 저는 뱀과

쇼우아 및 그 밖의 다른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방법과 **물문경 이야기책**에 있는 그림을 보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부르는지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안녕하세요**를 몽족의 언어로 **니아송**이라고 한다고 가르쳐



주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전등을 켜는 법, 연필 사용법, 돈으로 닭을 사는 방법 등 온갖 종류의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인정 많은 사람들이 몽 사람들에게 옷, 장난감, 과일, 사탕, 호두, 과자 등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렌지와 호두는 먹었지만, 사탕과 과자는 먹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는 몽족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쌀밥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초우와 념의 어머니는 제가 신년 파티에 입고 갈 몽족의 명절 옷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것은 밝은 청색 옷깃에 밝은 핑크색과 연두색으로 된 어깨띠가 달려 있는 검정 옷입니다. 또 구슬도 많이 달려 있고, 자수와 많은 장식이 있어 걸을 때마다 반짝거립니다.

그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몽족 말로 판다오라 불리는 화려한 자수 그림을 주었는데, 그 말은 무늬가 있는 천을 뜻합니다. 그 그림은 고대 몽족의 종교적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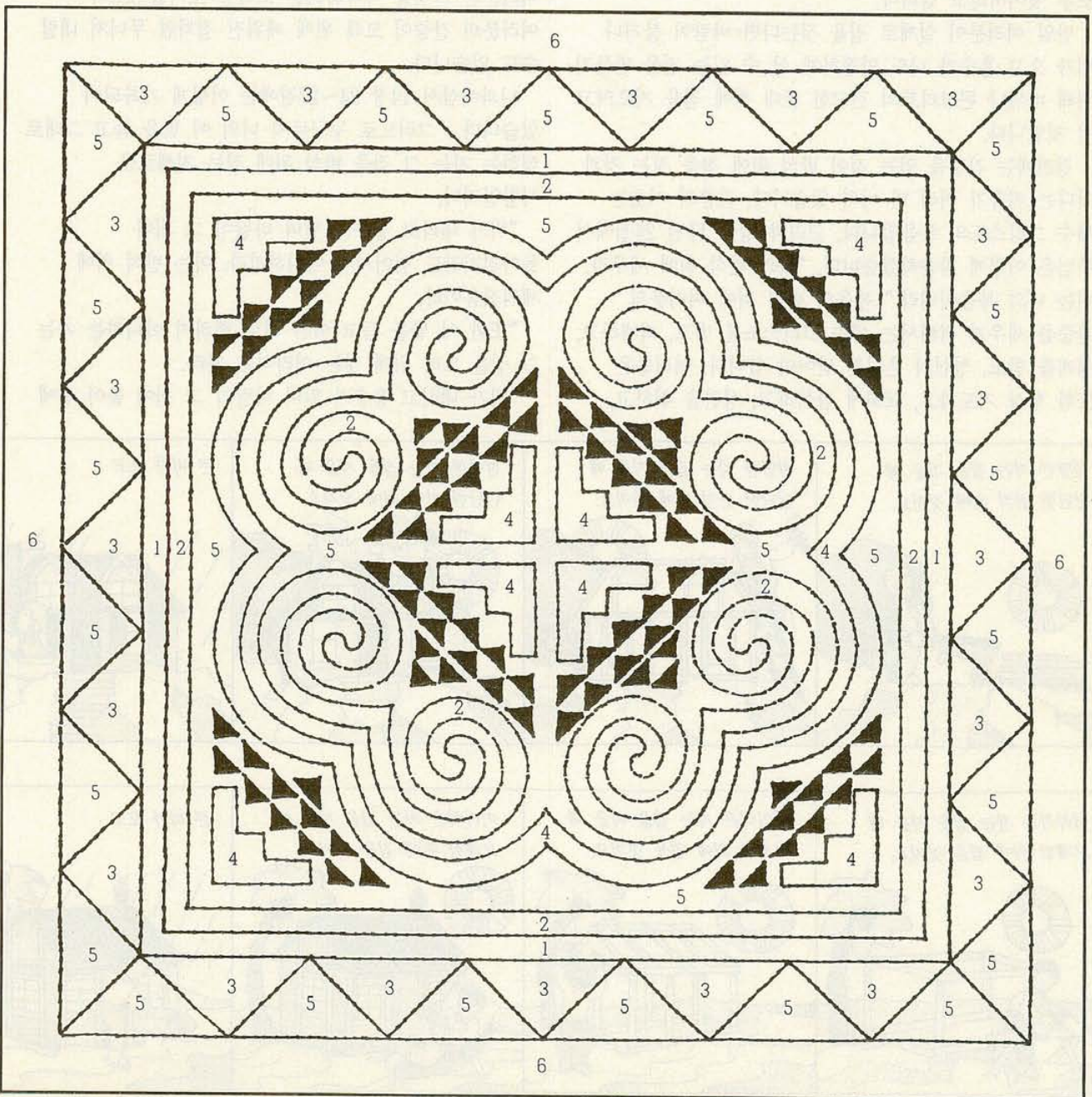
클라우의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십자수놓는 법과 꽃 문양의 수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종이 위에 그림을 베끼거나 그려 그것을 진짜 판다오처럼 보이게 색칠을 하기도 합니다. 몽족 사람들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좋아하는 색인 보라, 빨강, 파랑, 노랑, 연두색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

달팽이 모양의 판다오

색깔 제언

- (1) 흰색
- (2) 보라색
- (3) 파랑색
- (4) 연두색
- (5) 노랑색
- (6) 빨강색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여러분은 해변으로 가서 모래성을 쌓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고 모양을 다듬는 것은 재미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가 살며시 밀려와서 모두 씻어버리고 맙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제로 집을 짓는다면·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안정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 바위나 콘크리트의 견고한 토대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경전에는 간증을 얻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간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리와 성약 11편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반석 위에 세우라. 이는 나의 복음이니라.” 복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간증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항상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성찬을 취하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니파이삼서 11:38~40; 18:1~15 참조)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지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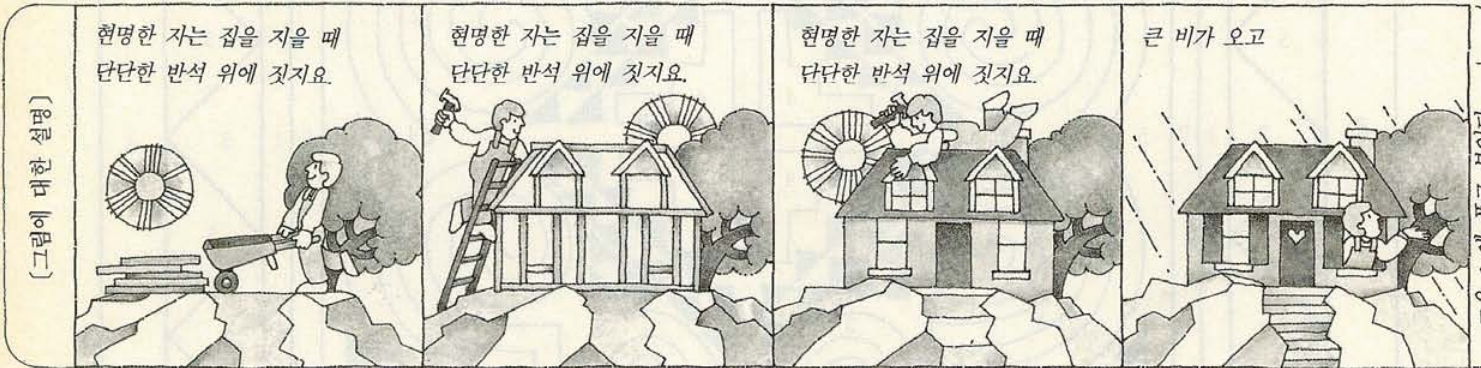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집을 부수려는 비와 홍수, 폭풍우와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의 반석 위에 자신의 간증을 세우지 않는다면, 시련과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여러분의 간증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니파이삼서 14장 24~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일지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며 바람이 그 집에 몰아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라.

“또한 이 말을 듣고 이른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며 바람이 그 집에 몰아 침에



위에 세우라”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하리로다.”

유의 사항

표시대로 낱말 스트립을 오려내어 양끝을 풀로 맞붙인다. 그림 스트립과 텔레비전 화면을 두꺼운 마분지에 풀로 붙인다. 화면을 오려내고, 점선을 따라 가늘고 길게 그어진 곳을 주의깊게 오려낸다. 화면의 오려진 부분으로 낱말 스트립을 넣는다. 그림을 화면 속에 넣으면서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활동 노래와 동시 (PBMU0279KO), 36쪽 참조)를 노래부르거나 가사를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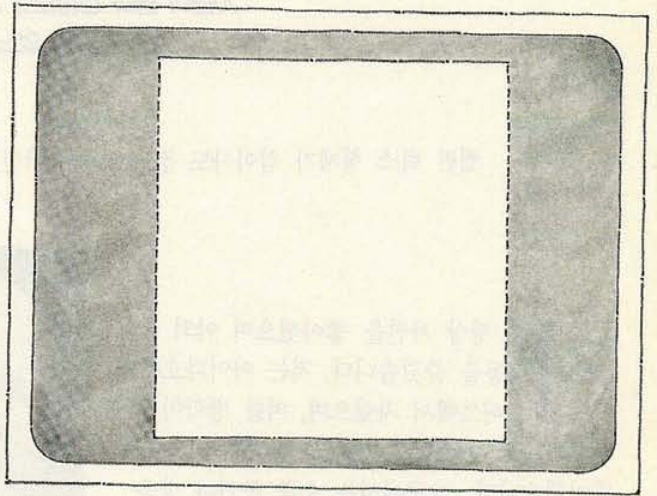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제안

1.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간증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 경험을 이야기하게 한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에 관해 일지에 기록하거나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며 연극으로 꾸밀 수도 있다.

2.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얇은 종이로 간단하게 두 집을 만든다. 큰 접시의 모래더미 위에 종이 집 하나를 놓고, 다른 종이 집은 바윗돌 위에 테이프로 튼튼히 붙인다. 홍수를 나타내기 위해 접시에 물을 부으면서 물이 모래를

쏟아가는 것과 바윗돌 위에 세운 집이 안전한 것을 보여 준다.

3. 여러분의 간증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종이 띠에 적어 붙이거나 벽돌을 붙여서 쌓거나 바위에 붙인다. 그러한 방법이 왜 중요한지를 토론한다. *



드을 르에 풀로 붙인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켈린 릭스 형제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저는 항상 자연을 좋아했으며 야외 활동을 즐겼습니다. 저는 아이다호주의 보이즈에서 자랐으며, 여름 방학이 되면 아주머니의 농장으로 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를 몰거나 말을 타기도 했으며 작은 강에서 수영하고, 종종 건조 더미에서 별을 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종종 지상의 아름다움과, 농장이나 강에서 보이스카웃 대원들과 함께 했던 그 훌륭한 시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또한 저는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모임과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열두 살이 되기 전에는 침례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친구들은 모두 집사에 성임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들 중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찬을 전달하거나 모임 장소를 따듯하게 하기 위해 불을 지피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었던 것들 중 단지 두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께서 침례를 허락해 주시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승낙하셨을 때 우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제가 교회 회원이 되고 신권을 소유하면서 갖게 되는 책임을 배움에 따라 저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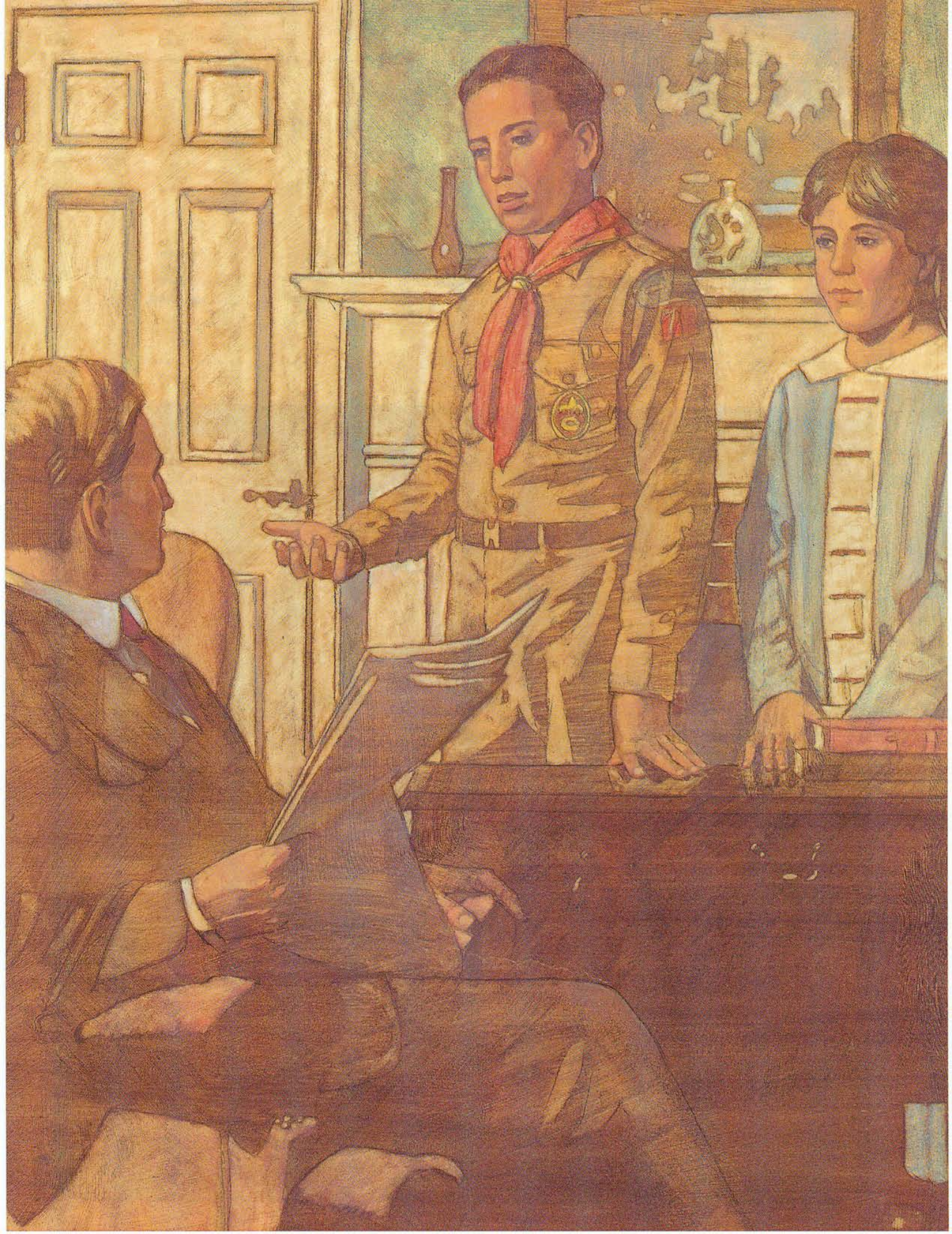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과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린이들보다 늦게 침례를 받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저는 그때 목장과 농장 근처에서 사는 소년 소녀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자라는 우리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던 보이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 도시를 가로 질러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숲이 우거진 곳이 있어서 방과 후나 토요일이면 즐겨 가곤 했습니다. 저는 애견과 함께 가서 배를 띄우거나 나무 줄기로 풀피리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우리는 비버가 물 속에 집을 짓고 물고기들이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았으며 새들이 둥지를 틀고 어린 새끼들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 지역의 보이 스카웃 대대에 들어갔으며 여름이면 친구들과 함께 하이킹과 캠핑을 즐겼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초등협회에 함께 참석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초등협회 회장이셨는데 저는 여동생인 도로시와 함께 초등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므로 제가 여덟 살이 되어서도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핀란드 투르쿠의

사투 메렌루오토

..... 로런스 커민스



리처드 앤 톨니 사진

‘동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열 살된 사투 메렌루오토는 여러 면에서 타고난 창조적 재능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투의 침실에는 사투가 형겹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인형과 동물이 모아져 있습니다. 또한 사투의 집 문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는 사투가 어느 온 좋은 새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새 집이 걸려 있습니다. 사투는 자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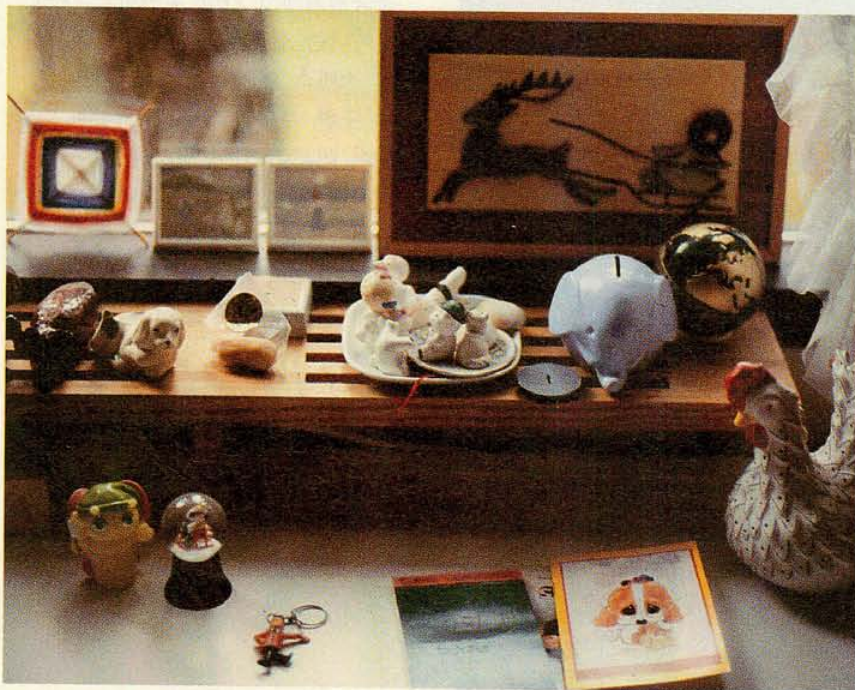
장난감집 지하에 있는 조그만 박물관에 직접 만든 물건들을 늘어놓습니다.

사투네 가족은 투르크 지방에서 가까운 섬의 어느 한적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투네 뒷마당에는 그네가 달려 있는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사투는 그네타기를 아주 좋아하며 싫증을 내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사투가 그네를 타지 않을 때는 가까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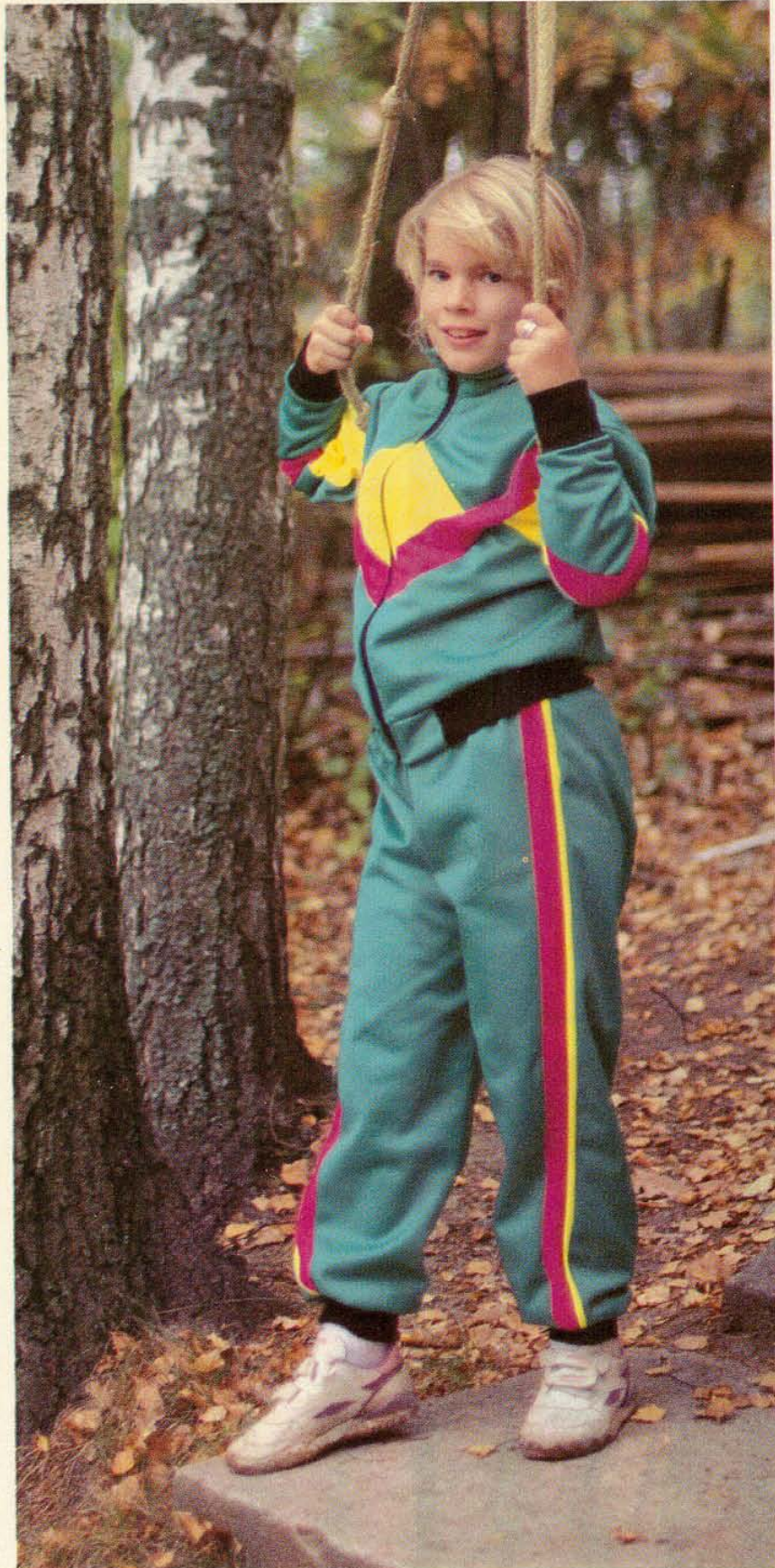
곳에 살고 있는 소꿉친구인 안나 히콜라와 장난감 집에서 놀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다른 초등협회 어린이들처럼 사투와 안나도 종종 일요일 모임이 모두 끝난 후에 서로의 집에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사투는 피아노 치는 것과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며, 부엌이나 마당에서 어머니 돕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사투는 핀란드만 건너 소비에트 공화국의 에스토니아 펜팔 친구에게 편지 쓰기를 좋아합니다. 사투에게는 유카와 마르쿠라는 남동생이 두 명 있습니다. 사투와 남동생들은 가정을 좀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부모님이 제안하신 것을 지켜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달 동안 텔레비전의 폭력물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카리나 메렌루오토도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실내장식 색조 상담자인 어머니는 청녀 고문과 신학 연구원 교사로 봉사하느라 교회에서도 바쁩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라이모 메렌루오토는 이동 전화를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며 핀란드 탐페레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맞은 쪽 : 사투 메렌루오토가 뒷마당의 나무에서 그네타는 모습. 위 : 장난감집 지하실에 있는 사투의 작은 박물관. 맨 왼쪽 : 사투가 자신이 만든 형겹 인형이 있는 침실에 앉아 있는 모습. 오른쪽 : 사투가 자신이 만든 새집을 보여주는 모습.



초등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사투는 “교회사와 요셉 스미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분이 어른이 되어 병자들을 고치시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투는 다시 그네를 타면서 창조적인 상상력을 펼칩니다... 저는 저의 박물관에 소형 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집으로 지네 인형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에스토니아와 일본에 살고 있는 두 펜팔 친구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

왼쪽: 나무 그네에 서 있는 사투
메렌루오토. 위와 어린이란 표지:
소꿉 친구인 안나 히이콜라와 함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신권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여 1990년 5월 6일 세계 방송에서 하신 말씀

아론 신권 회복 기념사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저는 몇 년 전에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50년 전 당시 북 중앙 주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던 아더 웰링 선교부장이 쓴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 읽혀지도록 된 그 편지는 반세기나 다른 서류 및 기사 문치들과 섞여서 봉인된 채로 미니아폴리스 스테이크 센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웰링 선교부장이 쓴 이 편지를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1931년 1월에 쓰여진 편지의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의 나의 후임자에게, 1981년을 맞이하여 새해 인사와 함께 행복되고 번영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사시게 될 세상도 그 이전의 세상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그 때쯤에는 지금도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라디오를 통해 모든 나라와 혈족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비교적 용이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가두 전도 및 구도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교회에서 만나는 방법과,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간증을 전하는 등 비교적 속도가 느린 전도 방법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을 기쁘게 하고 있으며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독일 출신인 아인슈타인 교수가 캘리포니아주 파세디나에서 자신이 세운 상대성 이론의 적용을 관찰하고 있는데, 그 이론을 이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제7대 대관장으로 13년째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올 50년 안에 라디오, 텔레비전, 질병 치료 등의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무척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형제님에게 성공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아더 웰링 선교부장

저는 그 편지를 다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업에 과학 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본질적으로는

1930년대의 선교사들이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교회의 훌륭한 교사가 텔레비전 대중매체를 통하여 선교사 토론을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단번에 수많은 개종 가능성있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선교사 개개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서 선교 사업을 행했으며 또한 현재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통해 성취하는 성장과 봉사하는 그 훌륭한 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선교 사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며 개인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론 신권은 어떻겠습니까? 아론 신권이 하는 일에는 어떤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다섯 자녀를 키운 유타주 랜돌프에 있는 낡은 집의 뒷뜰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수양버들이 있는데, 나무의 굵은 가지는 뒷뜰에 있는 다른 나무들보다도 컸습니다. 그곳은 동생과 제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무집을 지을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이 멋진 나무집을 짓기 위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생애의 최대의 걸작품을 기대하며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온 동네를 다니며 재료를 모아서 집을 짓기에 더 할 나위없이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는 두 개의 나뭇가지가 있는 곳으로

제료를 날랐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 집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완성된 집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굉장히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름 내내 일했으며, 마침내 가을 새 학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노력의 결실을 맛볼 때 느꼈던 만족감과 기쁨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 집에 앉아서 몇 분 동안 둘러보고 나무에서 내려왔으며, 그후 다시는 나무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인생의 여러 분야에서도 자주 인용될 수 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름내 설계하고 자재를 수집하고 건축을 하며 보냈습니다. 완성된 건물은 나름대로 훌륭했으나, 우리의 관심을 하루도 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짓는 과정이 영속적인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론 신권은 예비 신권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침례 요한이 1829년 5월 15일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거의 일 년 후인 1830년 4월에 아론 신권의 임무가 계시로 분명히 주어졌으며 그것은 현재 교리와 성약 2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침례를 베풀며 성찬을 집행하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며” 그 외에 그들은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 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0 : 46~47, 53, 59)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은 신성한 성찬 의식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을 집행하는 책임은 그들의 임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 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것이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은 가정 복음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는 가운데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그의 임무를 배우고 그가 부름받은 직분에 충실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 복음 교육에 청남을 깊이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청남들이 그들에게 지명된 가족을 가르치거나 그 가족을 위한 임무를 다하지 않으며, 또한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청남이 봉사할 일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 복음 교육에 깊이 관여시킬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차 대회에서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여러분,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을 동반자로 지명받았을 때 그를 잘 훈련시키십시오. 가족을 가르치는 일에 그를 잘 활용하십시오. 이 젊은 형제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육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선임 동반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 부름을 여러분이 한 것과 같이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십시오.”(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52쪽)

전 세계를 통하여 많은 스테이크 내에 인상적이고 광범위한 선교사 준비 과정이 개발되어 있으나, 아직도 많은 청남들이 가정 복음 교육에 깊이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성장과 발전과 배움의 과정 없이 그들의 선교 지역에

도착합니다. 저는 가정 복음 교육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제가 감독이라면, 저는 모든 청남들이 가정복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볼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 활동적인 신권 지도자가 없는 청남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모든 아론 신권 청남은 활동적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함께 매 달 하루 저녁을 보내야 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가정 복음 교사가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봉사는 교회에 없습니다.”(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51쪽)

웰링 선교부장이 미래의 선교 사업에 대해 그려 보았던 대로 통신 기술을 통해서 모든 가정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능력을 기르며 발전해 가는 것이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행위와 가정 방문을 전후해서 준비하고 봉사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은 아론 신권 사업의 위대한 목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론 신권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채로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것은 마치 제가 지었던 나무집을 짓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보이스카우트는 “나의 명예를 걸고, 나는 하나님과 조국에 최선을 다해 나의 의무를 다 할 것을...”로 시작되는 선서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외우고 있는 보이스카우트 조직의 스카우트 규율을 사랑합니다. 스카우트 규율은 스카우트 발전에 필요한 품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상수훈”, 칼 하인리히 블로흐 그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사면에 유리가 있는 산 꼭대기에 앉으시니 제자들도 앉아서 예수께로 나아와



상단:산토 도밍고에서 1983년 침례받은 헤كتور 안토니오와 베니타 리버라토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세워진 교회의 초창기 “선구자”들의 본보기이다.
하단:쿠바 태생의 세사르 로자노와 그의 아내 릴리안은 1989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티아고에서 교회 회원이 되었는데 그 동기는 회원들이 “서로에게 너무 잘 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도미니카 성도들”, 10쪽 참조.